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02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이 유 립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이 유 림

인 준 서

이유림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0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로, 자아의 발달로 인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 통제된 환경으로부터의 이탈을 소망하는 심리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개인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사이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환경 변화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긍정적 접근과 올바른 신체상 인식 등을 학습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발달 과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은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의 남녀 청소년 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지지, 거부, 구조제공, 강요, 비밀관성 5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의사결정유형은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 5가지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공격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내면화, 인식 2가지 요인을 사용하였으며, 외모관리행동은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관리, 체중관리 3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의사결정유형에 유의미한 관계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은 거부, 강요가 유의하였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비밀관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회피적 행동은 부모지지, 강요, 비밀관성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은 비밀관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거부, 강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및 헤어관리는 부모지지, 강요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은 의존형, 직관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이 인식 요인에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회피형, 의존형, 직관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 및 헤어관리는 회피형, 합리형, 의존형이 유의하였으며, 체중관리는 회피형, 직관형이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내면화 요인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이 유의하였고, 인식 요인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 및 헤어관리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유의하였

다, 체중 관리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유형은 거부, 강요에 대해서만 부분매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지지, 강요, 거부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유형은 부모지지, 강요, 거부에 부분매개효과가 있었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부모지지, 강요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되,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중용적인 부모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정보와 청소년들의 외모 및 올바른 신체상 인식 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II. 이론적 배경	4
1. 부모양육태도	4
2. 의사결정유형	10
3. 스트레스 대처방식	5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2
5. 외모관리행동	23
III. 연구방법 및 절차	33
1. 연구문제	33
2. 연구절차	33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33
4. 측정도구	34
IV. 연구결과 및 논의	38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38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104

3.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	25
4. 청소년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분석	54
5.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07
6.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 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 효과 분석	98
V. 결 론	122
1. 결론	122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1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분류	9· 2
<표 2> 설문지의 구성	73
<표 3> 인구통계적 특성	93
<표 4> 부모양육태도 요인분석	24
<표 5> 의사결정유형 요인분석	54
<표 6>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분석	7 4
<표 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분석	9 4
<표 8>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15
<표 9> 상관관계분석	35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특성 차이분석	6· 5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특성 차이분석	0· 6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 차이분석	3· 6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 차이분석	66
<표 1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9· 6
<표 15>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2· 7
<표 16>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5· 7
<표 17>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7· 7
<표 18>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0· 8
<표 19>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3· 8
<표 20> 의사결정유형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6· 8
<표 21>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8
<표 22>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2· 9

<표 23>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에 미치는 매개효과	6
<표 24>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에 미치는 매개효과	9
<표 25>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에 미치는 매개효과	12
<표 26>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에 미치는 매개효과	15
<표 27>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에 미치는 매개효과	108
<표 28>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 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111
<표 29>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113
<표 30>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에 미치는 매개효과	116
<표 31>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119
<표 32>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12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인간의 발달 단계 중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정체감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증가하게 된다(맹성준, 한창근, 2017). 청소년기는 성인 이전의 단계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신적인 발달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로 아동기와는 다르게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적당한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적응적인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 또한 달라진다(유계숙, 신동우, 2013). 이렇듯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거치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학습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교육 장소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타인이 부모임을 가정하면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부모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조복순, 안상근, 2017).

외모의 경우,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유전적 영향으로 부모를 닮게 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모의 외모관리행동과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 기준을 학습하여 따라하게 되므로(한미숙, 이윤정, 2007), 부모양육태도 또한 청소년 자녀의 외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3~18세의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고민이 13.1%로 조사되었는데(통계청, 2019), 이와 같은 결과는 현대 사회의 외모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외모지상주의와 같은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가 청소년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여 외모에 대한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가 이상적 외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올바른 외모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한미숙, 이윤정, 200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모양육태도와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해 각각 연구한 결과만 보고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하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외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나타나는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이상미를 내면화하는 정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개념 및 유형 등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와 측정 도구를 제시한다.

셋째, 앞에서 제시된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조사하며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제언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정의

부모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나타내는 태도 또는 행동으로(Becker, 1964), 자녀의 성격과 행동,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를 통제하고 사회화하는 시도라고 하였다(Baumrind, 1967).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 가족 구성과 가정 분위기, 사회문화적 배경,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또한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으로 자녀의 언어, 정서, 성격, 사회적 발달 및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이서영, 곽대훈, 2020).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양육태도를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이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과 자녀에 대한 요구로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할 때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특성으로 개념화하였다(허정철, 2010).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로서 그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도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권미경, 2009),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고 중요한 성장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과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가영희 외, 2008).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게 되며, 사회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모의 행동으로부터 학습한 돌봄과 애정의 태도를 타인에게 베풀어 대인관계는 물론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부모가 비일관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노출되어 대인관계와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황예은, 이지민, 2020).

이렇듯 부모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써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는 모습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성은모 외, 2013).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양육태도는 부모 자신의 성격과 정서 상태, 가정의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가정의 구성, 자녀의 특성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구성된다.

부모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한 Symonds(1937)는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하여 자녀를 과잉보호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적당한 애정을 표현하며,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하지 않은 태도라고 규정하며 양육태도를 과보호, 거부, 지배, 복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Symonds(1937)의 연구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 한 초기 연구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정신분석학을 기초로 한 임상 사례에만 의존하여 실생활과 괴리가 있고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비관적으로 설명하였다는 단점이 있다(김나경, 2019).

Schaefer(1959)는 Symonds(1937)의 연구를 보완하여 신생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양육태도를 장기적이고 종단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자율-통제 2개의 축으로 구분하였다. 2개의 축을 다시 애정-자율, 애정-통제, 적대-자율, 적대-통제로 나누어 부모양육태도를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Baumrind(1971)는 부모양육태도를 권위적, 허용적, 민주적 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권위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엄격하고 강압적이며, 자녀에게 체벌을 하기도 하며, 자신의 말에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반면, 허용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녀 행동에 규칙과 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체벌도 거의 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스스로의 결정하고 행동하며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또한 민주적 양육태도의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녀의 독립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규칙 제시와 통제를 하지만, 자녀들에게 규칙과 가치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지와 수용을 해준다고 설명하였다.

Skinner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자율성지지, 따스함, 거부, 강요, 비밀관성, 구조제공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따스함, 구조제공, 자율성 지지의 부모양육태도는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설명하였다.

자율성지지는 자녀의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이고자 하는 능력을 지지하는 양육태도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선택을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존중과 존경을 전달하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관점이나 목표, 선호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의사소통한다(정교영, 신희천, 2011).

따스함은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심

과 배려, 정서적 지원 등이 포함되는 양육태도이다(이미라, 전향신, 2020).

거부는 따스함과 반대되는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 거부의 표현으로는 혐오, 적개심, 가혹함, 과잉행동, 짜증 등이 있으며, 비판, 조롱, 반대 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Skinner et al., 2005).

강요는 자율성지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녀에게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는 독재적인 양육태도이며, 부모는 자녀의 행동과 심리를 통제하고 자녀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삶의 방식과 기준을 강요하며, 정해진 규칙은 무조건 복종하도록 유도한다(Skinner et al., 2005).

구조제공은 자녀의 행동이나 체벌 및 훈육 등에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가지는 양육태도로 정의되며(Skinner et al., 2005), 일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설명, 문제의 해결책 탐구 및 다양한 방법 제시 등 가정 내에서 부모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양육태도이다(김태명, 2016).

비일관성은 자녀에게 일관성과 기준 없이 체벌 및 훈육 등을 하는 태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일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또는 부모의 기분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내지 않기도 하며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한다(허묘연, 2000).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Skinner et al.(2005)의 6가지 유형을 연구의 바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 부모양육태도의 선행연구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아동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애착을 느끼며, 부모와의 유대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가 발달에 포괄적으로 관여하게 되며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긍정적 발달은 청소년기 이후 삶과 환경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김미경, 2017), 이 시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남현아, 조은영, 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삶의 방향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개인 인격 형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의 대인관계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김기승, 함혜수, 2019).

그러나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실제적 부모의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부모 아래서 양육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태도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허묘연, 옥정, 2013),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최인선, 주은지(2013)는 성별이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 중 애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김지자 외(2001), 최진(2016), 김서연(2018) 등의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학교별 차이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정애, 2008), 특성화고 집단이 일반고, 특목고 등의 집단보다 부모양육태도 수준이 높게 조사되었다(최진,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인 애정적, 성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하며, 반대로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조복순, 안상근, 2017).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트레스 및 우울을 감소시키며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석남 외 2012). 부모양육태도의 불일치도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모두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 스트레스는 부모의 영향을 미치고, 부모 모두가 부정적 양육태도이거나 어머니만 부정적인 경우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최진, 2016).

그러나 조결자, 이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가 부모의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에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지각되어도 그들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외모만족도 면에서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를 가진 경우 외모만족도와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한미숙, 이윤정, 2007).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대한 정운조(2016)는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권위, 통제, 적대, 거부, 애정, 수용, 민주, 자율으로 구분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 자율적인 경우와 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수용적일수록 직접, 간접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부모양육태도와 온라인 폭력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선미정(2020)은 긍정적 양육태도가 온라인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미영(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민주적 양육태도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

치고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육체적, 심리적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성장 및 발달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주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따스함, 구조제공, 자율성지지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의사결정유형

1) 의사결정유형의 개념

의사결정(意思決定, Decision Making)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의 행동 집합에서 어떤 특정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자 : 2020. 04. 28). 이 개념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존재라고 가정하며,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 중 자신의 기대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 기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길환 외, 2012).

어떤 문제에 대한 선택상황에서 사람들은 각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며, 개개인마다 다른 시각으로 선택상황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의사결정유형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의사결정유형에 대하여 Arroba(1978)는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특정한 결정에 접근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 하였으며, Harren(1979)은 개인이 의사결정 상황 또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특징적인 방식 또는 개인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라 정의하였다.

Scott & Bruce(1995)는 의사결정유형의 개념과 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

하며 의사결정유형을 개인이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는 학습된 습관적 반응 패턴으로 정의하고,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아니라 특정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습관 기반 성향이라고 하였다.

Thunholm(2004)는 Scott & Bruce(1995)가 의사결정유형을 습관에 기초하여 정의한 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가진 습관적 차이뿐만 아니라 정보처리, 자기 평가, 자기 규제와 같은 기본적인 인지 능력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고향자(2000)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이 선호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의사결정유형을 정의하였으며,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평범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생소한 것에는 불편함을 느끼며,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으로 여겨 본인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규정하였다(김은주 외 2011).

김범석(2016)은 인간이 선택의 상황에서 후회를 최소화하고 보다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의 선택과정이며 이에 따른 인간의 반응양식 및 행동은 개개인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을 개인이 의사결정상황에서 개인이 나타내는 반응 패턴이며, 이 반응 패턴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익숙해진 습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의사결정유형의 분류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의 인지적 처리방식으로 아동기에서부터 청소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환경과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구성된다.

Arroba(1977)는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의사결정유형을 감정형, 주저형, 논리형, 동조형, 직관형, 무사고형으로 분류

하였다. Harren(1979)은 직관적, 합리적, 의존적 유형 세 가지로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였으며, 합리적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유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영나와 김광웅(2001)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무력형, 지연형으로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임혜빈(2016)은 분석적 의사결정, 직관적 의사결정, 후회기반 의사결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의사결정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Scott & Bruce(1995)가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회피형, 즉흥형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다(Loo, 2000; Thunholm, 2009; 김은주 외, 2011; 김범석, 2016).

합리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과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진다(고향자, 1993).

직관형은 합리형과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의 책임을 스스로 지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며, 정보탐색행동 또는 대안들에 대한 논리적인 평가 과정은 대부분 가지지 않는다. 의사결정의 기초로 상상력을 사용하고, 개인의 직관과 감에 의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은 비교적 빠른 편이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과정과 적절성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다(조은선, 2012).

의존형은 타인에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의사결정의 책임을 외부로 투시하며 스스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회피한다.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상황을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다고 인식하기도 한다(남상인, 2003). 이러한 유형의 경우 의사결정과 관련된 불안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성취감이나 개인적 만족감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다(Harren, 1979).

회피형은 의사결정상황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의사결정을 피하게

나 미루려고 한다(김범석, 2016). 이러한 유형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기인한다(Scott & Bruce, 1995).

즉흥형은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며, 매우 빠르게 심리적으로 동조하며 유연한 목표를 가진다(김은주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Scott & Bruce의 5가지 유형을 연구의 바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의사결정유형 선행연구

의사결정유형은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개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넓은 사회에 적응해야 하며 그 사회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해진다.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사회와 가족에서 자신만의 위치를 마련하며 스스로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박미정 외, 2012). 또한 부모님과 또래 집단으로부터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받게 되며, 청소년기에 의사결정유형은 적응력, 또래관계, 진로결정, 과제수행, 자기욕구만족 등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곽환수, 이수림, 2020).

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성별 변인에서 여학생들의 경우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이며 신중하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의사결정에 타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수동적이고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년

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에 비해 합리적이고 덜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자 외, 2007).

의사결정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연구한 송소원(2001)은 의사결정유형을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의존적 유형의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의존형 유형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합리적 유형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의존형 유형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영나, 김광웅(200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은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성별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별 차이는 중학생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상인(2003)은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은 성별, 학교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의 관계에 대한 이지영(2006)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주체성이 높은 학생들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반대의 경우 직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인식 할 때,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 할 때 의존적인 방향으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허정철, 2010).

또한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에서

는 부모의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그룹의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부모의 학력 수준이 낮고 생산 기술직에 종사하는 그룹의 경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백선아, 2013).

곽환수, 이수림(2020)은 부모양육태도 중 과잉통제는 자녀들의 의사결정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가 자녀를 과잉통제 할수록 자녀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유형은 부모양육태도와 성장환경 등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사결정유형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학습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1)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는 개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 할 때 느끼는 신체적·심리적 긴장 상태를 말한다(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검색일자 : 2020. 05. 01). 인간은 살아가면서 전 생애 걸쳐 누구나 주어진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과 함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옥희, 안현의, 2008). 이러한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개인은 부적응적인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신체와 정신이 모두 탈진상태에 이르는 소진(Burn out)에 이르게 될 수 있다(조은혜, 2012).

스트레스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오미정, 2000), 고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도 비교적 안정된 정신적, 신

체적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사소한 일상에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이지영, 2010). 이는 어떤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그로 인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정유진, 고진강, 2016), 스트레스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1960년대 이후 스트레스가 인간의 생활에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식되며, 개인의 적응에 연관된 중재변인으로 스트레스의 적응 결과에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이 대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일반적 수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반응의 범위를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의식적 행동으로 범위를 제한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개념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신혜진, 2002).

Lazarus & Folkman(1984)는 개인의 자원에 부담을 주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내적 요구를 관리하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정원주(1997)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며 효율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백경숙, 권용신(2005)은 정신적,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노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자신 또는 외부환경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대처행동은 성격처럼 일관성이 있는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대응으로 나타나게 되며 의도적인 노력을 포함한다고 했다(고진경 외, 2009).

이규영(2013)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원인 또는 요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행하는 노력이며, 개인과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의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성과는 무관하게 그로부터 받는 피해를 감소시키고 통제, 인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할 수 있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다양하게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

Lazarus & Folkman(1984)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적 이해 수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감정중심의 대처방식과 문제집중의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감정중심의 대처방식은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선택적 주의, 긍정적 비교와 같은 전략들을 포함하는 행동 방식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통제하려 하며 발생한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문제의 긍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려 한다.

문제집중의 대처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며, 스트레스의 상황과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이득과 부담을 고려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다(Lazarus & Folkman, 1984).

민하영(1998)은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유형 분류와 척도가 성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용 가능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을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하였다.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적극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격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대상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직접적으로 대상에게 욕설, 신경질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제 3자에게 스트레스 대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도 한다(민하영, 1998).

적극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의 근원과 문제, 장애요소 등을 극복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동은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규정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 평가한 후 대안들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벗어나는 행동을 지향하는 것이다(권수영, 정혜선, 200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결해 나가려는 행동을 의미한다(조은선, 2012). 스트레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나 조언을 구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사람을 찾아 위안을 받으려고 하기도 한다(민하영, 199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고통스러운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거나(김희주, 정여주, 2018) 기적을 바라거나,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종교나 개인적 믿음을 통해 스트레스의 상황이 해결되길 소망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민하영, 2015). 또한 스트레스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나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도 한다(고진경 외, 2009).

많은 연구들이 Lazarus & Folkman(1984)이 분류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

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을 분류한 민하영(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구분하고자 한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선행연구

청소년기는 발달상의 미성숙함과 많은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로, 다양한 도전과제 및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으로 여자는 정서지향적 대처방식을 남자는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최희진, 2004), 이경희(1996)는 여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현숙, 구본용(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 청소년들은 문제와 감정을 은폐하거나 문제자체를 무시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여자 청소년들은 사회적지지 추구, 계획적 문제해결, 소망적 사고 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정원, 신은영(2001a)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성별 변인의 차이는 연구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의 걱정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강문희, 정은의(2003)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걱정 수준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지해 문제해결을 시도하거나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지우려 노력하며 회피하는 소극적이고 비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심우엽(2012)의 연구에서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모에 대한 불만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대한 김영희, 강은정(2016)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원인에 따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원인이 부모, 성적, 학교 관련인 경우 정서중심과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외모나 경제적 문제에 관련된 원인인 경우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 스트레스 문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처방식에 따라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 및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개념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의 인식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하였고, 사회문화의 맥락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외모의 아름다움을 평가하기보다는 각 개인이 속한 문화의 맥락을 기반으로 평가의 기준을 세우고,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을 주관적으로 인식한다(김선우, 2013).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외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와 특히 날씬한 신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황윤정, 유태순, 2010; Heinberg et al., 1995).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과거에는 미술이나 문학 등의 예술영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과거에는 각 문화 계층마다 외모에 대한 이상적 기준을 가지고, 일부의 사람들만 이러한 이상적 기준을 달성하도록 압

력을 받았다(황윤정, 2007). 그러나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는 신문, 잡지, TV, 인터넷,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빠르고 폭넓게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전달되고 있다(이나현, 류은정, 2011).

대중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강요되는 외모를 일반화하고 미적 기준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여 개인의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박미은, 2019), 사회적 이상에 적합한 아름다운 외모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모 관리행동을 취하게 된다(김선우, 2013). 이러한 사회적 비교과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외모보다 타인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더 집착하고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외모 및 신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미진, 김성남, 2019; Heinberg et al., 1995).

전현진, 정명선(2010)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표준을 내면화하고 인식하는 정도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위은하(2015)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대중매체를 통해 부각된 사회적 이상에 관한 메시지와 신체적 매력에 사람들이 외모의 사회적 이상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면화하여 그 사회의 신체적 표준에 근접하도록 하게 하는 마음가짐 또는 입장으로 규정하였다.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그 사회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문화의 가치적 기준이며(이나현, 류은정, 2011), 대중매체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인식과 내면화로 유형화하여 구분할 수 있으며, 인식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면화는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수용하여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윤정, 2007).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선행연구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성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근 남성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 또래집단, 사회에 의해 교묘한 방식으로 전달되어 청소년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다. 공미혜, 이영숙(2009)은 청소년들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신체에 대한 가치판단의 사회적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숙(2008)은 청소년들의 성별과 연령집단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 수준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 고등학생 집단이 매스미디어에서 보이는 이상적 외모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김수진, 위은하(2015)의 연구에서도 성별과 학교별 차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과 고등학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 내면화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 집단은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지각하여 자신을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송경자, 이미숙, 2009).

외모 강조 대중매체 노출 정도에 따라 여자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졌으나, 자기존중감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은 대중매체 노출 정도와 관

런 없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정도가 적게 나타났다(박정임 외, 2016).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홍금희, 2006),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할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요인이 인식요인보다 외모관리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광희, 2012).

이민지 외(2015)는 외모에 대한 내면화가 높게 나타날수록 외모관심도도 높게 나타나고, 외모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날수록 외모관심도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중매체의 노출, 수용적 태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외모관리행동

1) 외모관리행동의 개념

외모관리행동이란 타인이 나를 인식할 때, 나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Goffman, 1965),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과 같은 정체성 도구(identity kit)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oach & Eicher, 1965).

즉,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와 이상적인 외모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모에 관련된 행동인 의복, 체중조절, 화장, 성형수술, 피부관리 등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건 매일 외모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외모관리는 보편적 개념이다(Kaiser, 1990).

외모관리행동은 개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외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모든 행동이며(김현정, 2009), 외모와 관련된 개인의 모든 관심과 의사결정, 행동 등을 포함하며 의복 아이템을 구매하고 착용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 과정 및 신체 변형의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박은정, 정명선(2010)).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을 이용하려는 의도 및 행위라고 외모관리행동을 정의할 수 있다(박광희, 유화숙, 2012).

외모란 우리가 타인을 인식할 때 단서로 사용하는 신체적 특성으로 얼굴, 체격, 의복, 화장, 헤어,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이승희, 박길순, 2011). 또한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외모의 긍정적 변화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 상승도 수반한다(박광희, 유화숙, 2012).

외모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회적 행동이며,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자아에 관한 정보이다(박은아, 2003).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외모는 개인의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강평미, 2017).

또한, 현대인들은 외모를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며, 과거와 달리 개인의 노력으로 외모를 변화,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외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개인의 가치나 취향 등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차이를 가지며, 자신을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려는 외모관리태도를 형성한다(박은희, 구양숙, 2012).

외모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스스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의복, 액세서리 등을 구입하고 착용하기도 하며, 피부 관리, 체형 관리 등을 위해 전문

적인 장소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외모관리를 하기도 한다(강평미, 2017). 이렇듯 신체를 꾸미고 장식하며,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장점들 돋보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재능이라 할 수 있으며(김기현, 정연자, 2014), 과거 여성들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시대가 변모함에 따라 근래에는 나이, 성별과 무관하게 자신의 외모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외모관리행동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이상적인 외모와 비슷해지도록 변화시키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타인으로부터 받기 위해 행해지는 화장, 의복, 피부, 헤어, 체중 관리 등의 다양한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외모관리행동은 연구자마다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표 1>과 같이 피부 관리, 헤어행동, 의복행동, 화장행동, 체중 및 체형관리, 네일행동, 미용성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관리행동 유형을 피부관리, 화장행동, 의복행동, 헤어행동, 체중관리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각 유형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부관리

피부관리는 얼굴의 주름완화, 잡티보완, 탄력유지 등을 위하여 피부에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조선영, 2014).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피부란 건강한 피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건강한 피부는 외적으로 보아도 부드럽고 탄력 있어 보이고, 적당한 윤기와 혈색을 가진다. 반

면, 건강하지 못한 피부는 거칠어 보이며 창백해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피부는 인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 표현하기도 한다(김경희, 2002).

피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자신감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우선적 대우를 받으며, 피부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 상황에서 자신감이 낮아지며 스스로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미화, 2006).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피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희고 깨끗한 피부가 미의 일차적 기준이 됨에 따라 여성들은 마사지나 팩, 각질제거 등의 다양한 피부관리 방법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이순희 외, 2009). 청소년들은 여드름 등의 피부트러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여 피부관리를 하기도 한다(한동조 외, 2012).

(2) 화장행동

화장행동은 아름다움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이며 사회문화적 산물의 하나로서 자신의 외모를 그 사회문화권에서 선호하는 아름다움과 부합하도록 화장품을 활용해 수정, 보완해서 꾸미는 행동을 의미한다(고아라, 2020).

화장은 외모관리 수단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며(박은희, 조현주, 2014), 여성들은 화장행동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얼굴을 꾸밈으로써 자신 만족 및 미적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김미지, 2019). 뿐만 아니라 화장을 통해서 사회적인 역할을 표현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 인식하기도 한다(김명리, 김주덕, 2005).

청소년들에게 화장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며, 단순히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욕구로 화장을 하기보다 자기만족을 위해 화장을 한다(뷰티

경제, 2015, 검색일자 : 2020. 05. 04). 청소년들에게 화장은 자신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며,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김선우, 2020).

(3)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태도와 관심, 평가, 선호 및 착용 습관 등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의 한 형태로(정미실, 2013), 착용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하고(임숙자, 1992),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의복을 통해 개인의 취향, 기호, 감성 등이 표출된다(박근정, 김영삼, 2017).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항상 옷을 입고 생활하며, 의복은 제2의 피부로서 우리 몸을 감싸고 있으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김혜남, 1997).

청소년들은 의복이나 외모를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의복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박길순 외, 2011). 또한 의복에 대한 태도는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끼며 만족할 때에는 행동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되지만 의복이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심리적 위축감을 느끼기도 한다(황윤정, 유태순, 2010).

(4) 헤어행동

헤어행동은 일반적인 헤어에 대한 태도, 연출 행동 등 헤어스타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동이다(김민선, 2013).

헤어스타일은 토탈패션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의복선택 못지않게 중요한 외모관리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한 모발을 갖기 위한 헤어 관리 및 두피관리, 탈색, 염색, 퍼머, 커팅, 스타일링 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다양한 헤어행동이 보편화 되고 있다(박혜원, 2013).

퍼머, 커팅, 염색, 스타일링 등의 헤어행동은 같은 사람이라도 시술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미지 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얼굴 매력과 패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첫 인상과 이미지 형성에 주요 요소로 작용 된다(이명희, 송원영, 2006)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나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고 모방하기도 하며(송연화, 오경화, 2011),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자신만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하경연, 2011).

(5) 체중관리

본래 체중관리의 의미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체중을 줄이고 늘리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 성행하고 있는 체중관리에 대한 인식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행위를 의미한다(양현영, 변영순, 2012).

현대의 미의식은 날씬함과 연관되어 마른 체형이 더 선호되며, 이러한 경향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동에 이르기까지 전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이종순, 2008). 따라서 과체중의 경우 개인에게 부정적 자아와 우울, 불안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차은석 외, 2008).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체중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여자 청소년들은 본인의 객관적인 실제 체중보다 본인의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인식하고 있다(강현주, 2012). 이들은 체중조절을 위해 절식 또는 극단적인 단식 등의 식이조절을 선택하기도 한다(정선영, 2017).

<표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분류

연구자	외모관리행동 유형
김선희(2003)	체중조절행동, 미용성형수술, 전문피부관리, 화장, 머리염색
김아날리아 외(2006)	의복관심/헤어관리, 체중관리, 신장관리
백인선(2007)	외모연출관리, 외모관심관리
김윤(2007)	화장, 미용성형수술, 피부관리, 헤어스타일링, 몸매관리/체중조절,
황윤정(2007)	얼굴관리행동, 헤어관리행동, 의복관리행동, 부정적 체중관리행동, 긍정적 체중관리행동,
류현혜(2007)	체중체형관리, 피부관리, 화장행동, 헤어관리, 미용성형, 의복행동
이현옥(2008)	화장품 사용, 패션연출관리, 체형관리, 피부/헤어관리
김현정(2009)	의복관리, 체중관리, 성형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이유중(2010)	몸매관리, 의복관리, 화장/헤어관리, 방문외모관리
전현진, 정명선(2010)	헤어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 의복선택, 체중 및 체형관리
강동훈(2011)	체중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화장행동, 의복관리
박숙현, 박현주(2011)	피부관리, 헤어연출, 메이크업연출, 몸매관리
허윤희, 배현숙(2012)	헤어행동, 피부행동, 체중조절행동, 의복행동, 미용성형행동
문희정, 박길순(2013)	의복행동, 헤어행동, 메이크업행동, 피부행동, 네일행동, 체중조절행동
박혜원(2013)	체중관리, 피부관리/화장, 헤어관리, 의복선택
심재숙(2013)	체형관리, 피부 및 메이크업 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홍수남(2013)	메이크업 및 헤어, 미용성형, 피부관리, 체형관리
조선영(2014)	의복관리, 화장관리, 피부관리, 헤어관리, 체형관리
고선형(2015)	체형·외모관리, 화장·헤어관리, 성형·전문관리
김수진, 위은하(2015)	체중관리, 얼굴관리, 헤어 및 스타일 관리, 청결관리
고희자(2016)	피부관리, 성형수술, 화장, 의복연출, 신체관리
강평미(2017)	피부관리행동, 의복행동, 헤어관리행동, 체형관리행동
임우경(2019)	헤어행동, 메이크업 행동, 의복행동

3) 외모관리행동 선행연구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여 자신의 외모를 향상,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의복, 피부 관리, 헤어스타일, 체중조절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외모를 잘 가꾸어 나가면, 주변 여러 친구들에게서 인기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향상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희숙 외, 2017). 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자신의 외모가 이상적인 외모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져 상실감을 경험하고, 화장, 성형, 체중 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전용민, 2003).

이종순(2008)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관리행동을 연구한 결과 청소년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리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피부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을 분석한 한동조(2008)는 외모관리행동이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가정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외모관리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화장행동과 헤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미용성형행동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조사한 박은정(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외모를 가꾸고 향상시키는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외모에 간섭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

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적절한 외모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은희(2015)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는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스트레스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 하위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원만한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의복조화, 헤어관리, 피부관리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관련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외모관리행동 중 미용성형과 체중관리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유형 및 부모의 외모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의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의 인구통계적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5.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매개효과분석을 통하여 알아본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게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만 13~18세의 아이들을 말하고,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지칭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자 : 2020. 04. 2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3~18세의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1) 자료수집

설문 조사는 2020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여 632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4명을 제외하고 61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상관관계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넷째, 청소년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세~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 법을 사용하였다. 문항들은 모두 5점 Likert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은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게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24문항, 의사결정유형 20문항, 스트레스 대처방식 16문항,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0문항, 외모관리행동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소속 학교, 소속 학교의 형태, 학년, 한 달 용돈, 한 달 지출 외모관리비용, 형제(자매)수, 보호자 등에 관한 8개 문항으로 총 9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측정 도구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허묘연(2000), Skinner et al.(2005),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지지, 거부, 구조제공, 강요, 비일관성의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24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2) 의사결정유형

의사결정유형은 Scott & Bruce(1995), Loo(2000), Thunholm(2009), 김은주 외(2011), 김범석(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 5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2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민하영(1998), 박진아, 정문자(2001), 최희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공격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16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 이지영, 박혜정(2013), 박선영(201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내면화 요인과 인식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적용하여, 총 10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5)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Brown et al.(1990), 박숙현, 박현주(2011), 조선영(2014), 김수진, 위은하(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관리, 체중관리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총 15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6)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측정도구는 성별, 소속 학교, 소속 학교의 형태, 학년, 한 달 용돈, 한 달 지출 외모관리비용, 형제(자매)수, 보호자 등에 관한 8개 문항으로 최종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측정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척도	출처
1	부모양육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지지 • 거부 • 구조제공 • 강요 • 비밀관성 	24	5점 Likert 척도	허묘연(2000) Skinner et al.(2005)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2	의사결정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형 • 의존형 • 합리형 • 직관형 • 즉흥형 	20	5점 Likert 척도	Scott & Bruce(1995) Loo(2000) Thunholm(2009) 김은주 외(2011) 김범석(2016)
3	스트레스 대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격적 대처행동 • 적극적 대처행동 •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6	5점 Likert 척도	민하영(1998) 박진아, 정문자(2001) 최희진(2004)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면화 • 인식 	10	5점 Likert 척도	Heinberg et al.(1995) 이지영, 박혜정(2013) 박선영(2019)
5	외모관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 및 화장법 • 의복 및 헤어관리 • 체중관리 	15	5점 Likert 척도	Brown et al.(1990) 김수진, 위은하(2015) 조선영(2014) 박숙현, 박현주(2011)
6	인구통계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소속 학교 • 소속 학교의 형태 • 학년 • 한 달 용돈 • 한 달 지출 외모관리비용 • 형제(자매)의 수 • 보호자 	8	선택형	연구자
		합 계	93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대한 빈도 및 퍼센트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36%, 여자 63%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소속 학교는 중학교가 49%, 고등학교가 51%였다. 소속 학교의 형태는 남녀공학 중학교가 47.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 27.6%, 여자 고등학교 12.6%, 남자 고등학교 7.9%, 여자 중학교 2.9%, 남자 중학교 1.6%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 13.9%, 중학교 2학년 14.1%, 중학교 3학년 21.0%, 고등학교 1학년 14.9%, 고등학교 2학년 19.9%, 고등학교 3학년 16.2%로 중학교 3학년이 가장 많았다.

한 달 용돈을 살펴보면 5-10만원 미만 33.2%로 가장 높았으며, 5만원 미만 29.3%, 10-15만원 미만 13.1%, 해당 사항 없음(받지 않음) 10.0%, 15-20만원 미만 7.3%, 20만원 이상 7.1%의 순이었다. 한 달 외모관리비용은 5-10만원 미만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만원 미만 4.9%, 10-15만원 미만 5.0%, 15-20만원 미만 2.1%, 20만원 이상이 1.9%였다.

형제(자매)의 수를 살펴보면 1명 59.2%, 2명 18.1%, 3명 이상 9.4%, 없음(외동) 13.3%로 본인 외의 형제(자매)가 1명이 더 있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를 살펴보면 부모님 90.2%, 어머니 4.5%, 조부모 외 기타 3.2%, 아버지 2.1%의 순이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부모님에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인구통계적 특성

(N=618)

구분	항목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자	228	36.9
	여자	390	63.1
소속 학교	중학교	303	49.0
	고등학교	315	51.0
소속 학교 형태	남자 중학교	10	1.6
	여자 중학교	18	2.9
	남녀공학 중학교	293	47.4
	남자 고등학교	49	7.9
	여자 고등학교	78	12.6
	남녀공학 고등학교	170	27.6
학년	중학교 1학년	86	13.9
	중학교 2학년	87	14.1
	중학교 3학년	130	21.0
	고등학교 1학년	92	14.9
	고등학교 2학년	123	19.9
	고등학교 3학년	100	16.2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181	29.3
	5-10만원 미만	205	33.2
	10-15만원 미만	81	13.1
	15-20만원 미만	45	7.3
	20만원 이상	44	7.1
	해당 사항 없음(받지 않음)	62	10.0
한 달 외모관리비용	5만원 미만	30	4.9
	5-10만원 미만	312	50.5
	10-15만원 미만	31	5.0
	15-20만원 미만	13	2.1
	20만원 이상	12	1.9
	해당 사항 없음	220	35.6
형제(자매) 수	1명	366	59.2
	2명	112	18.1
	3명 이상	58	9.4
	없음(외동)	82	13.3
보호자	부모님	557	90.2
	아버지	13	2.1
	어머니	28	4.5
	조부모 외 기타	20	3.2
합 계		618	100.0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의 요인분석

1)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4>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3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4.255%로 나타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0.74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97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1.286%)은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모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 2(16.243%)는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거부’로 명명하였다.

요인 3(9.753%)은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 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조제공’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8.956%)는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강요’로 명명하였다.

요인 5(8.017%)는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일관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다섯 개의 요인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부모양육태도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부모 지지	거부	구조 제공	강요	비일 관성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834	-.138	.108	.079	-.092	.741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766	-.288	.182	.069	-.124	.722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750	-.097	.156	.058	-.094	.608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655	-.291	.267	-.051	-.101	.597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612	-.343	.269	.261	-.117	.646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600	-.205	.137	.296	-.153	.532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558	-.406	.246	.314	-.013	.635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556	-.208	.322	.337	-.141	.590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261	.741	-.066	.051	.294	.711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006	.720	-.055	-.327	-.044	.631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387	.659	-.119	-.072	.062	.607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382	.583	-.031	-.084	.312	.591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294	.577	-.195	-.270	.256	.595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314	.571	-.055	-.324	.137	.551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150	.085	.767	-.161	-.250	.706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318	-.195	.709	.131	.090	.667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 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신다.	.240	-.155	.672	.169	-.025	.562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099	-.111	.014	.787	-.242	.700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저래라 하신다.	.229	-.352	.075	.645	-.130	.614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	-.144	.116	-.005	-.262	.803	.748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174	.358	-.202	-.143	.720	.738
고유값	4.470	3.411	2.048	1.881	1.684	
분산(%)	21.286	16.243	9.753	8.956	8.017	
누적(%)	21.286	37.530	47.282	56.238	64.255	
신뢰도(Cronbach's α)	.902	.845	.656	.597	.699	
전체신뢰도			.740			
KMO와 Bartlett 검정			KMO=.932, $\chi^2=6,147.566$			$p<.000$

2) 의사결정유형의 차원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의사결정유형에서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4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5.213%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728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8.119%)은 나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연기한다,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피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4.642%)는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존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3.943%)은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 안을 고려한다, 나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합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0.245%)는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본능에 의존한다,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로 ‘직관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8.264%)는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흥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다섯 개의 요인적재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의사결정유형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	
나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830	.034	-.156	.107	-.009	.725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연기한다.	.821	-.032	-.066	.077	-.037	.687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783	.051	-.037	-.044	.205	.660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751	.112	-.092	.183	-.060	.623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027	.796	.012	.138	-.078	.660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326	.774	-.008	-.003	.052	.708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055	.742	.185	.067	.033	.593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038	.685	.135	-.153	-.074	.518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092	.000	.763	-.015	.038	.591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 안을 고려한다.	.034	.096	.717	-.105	-.086	.544
나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183	.096	.714	.033	.092	.562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한다.	-.115	.187	.655	-.007	-.299	.566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본능에 의존한다.	.114	.045	-.024	.898	.044	.824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154	-.005	-.061	.808	.267	.751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101	-.100	.030	.170	.850	.773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381	.089	-.316	.197	.598	.649
고유값	2.899	2.343	2.231	1.639	1.322	
분산(%)	18.119	14.642	13.943	10.245	8.264	
누적(%)	18.119	32.761	46.704	56.949	65.213	
신뢰도(Cronbach's α)	.828	.756	.710	.735	.550	
전체신뢰도			.728			
KMO와 Bartlett 검정			KMO=.772, $\chi^2=2,950.170$		$p<.000$	

3)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원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4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4.140%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63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52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19.462%)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주거나 욕해준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준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18.331%)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15.323%)은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혼자 조용히 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11.024%)는 전화상담을 하거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네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공격적 대처 행동	적극적 대처 행동	소극· 회피적 대처 행동	사회 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놀려 주거나 욕해준다.	0.755	-0.002	-0.032	-0.112	0.584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0.755	0.060	-0.058	0.087	0.584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 준다.	0.731	-0.209	-0.024	0.264	0.648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0.715	0.085	0.282	-0.047	0.600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0.040	0.821	0.003	-0.056	0.67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0.056	0.816	-0.097	0.075	0.684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0.103	0.805	0.027	0.097	0.668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0.127	-0.194	0.786	-0.100	0.681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0.142	-0.011	0.726	0.042	0.549
혼자 조용히 운다.	-0.221	0.115	0.716	-0.025	0.576
전화상담을 하거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0.185	-0.089	0.119	0.840	0.763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0.124	0.314	-0.269	0.703	0.680
고유값	2.335	2.200	1.839	1.323	
분산(%)	19.462	18.331	15.323	11.024	
누적(%)	19.462	37.793	53.116	64.140	
신뢰도(Cronbach's α)	0.737	0.765	0.622	0.523	
전체신뢰도			0.630		
KMO와 Bartlett 검정	KMO=.689, $\chi^2=1,662.429$ $p<.000$				

4)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차원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7>과 같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1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8.796%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880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812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39.653%)은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과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나는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나는 나의 몸매를 TV 스타들이나 영화배우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면화'로 명명하였다.

요인 2(29.143%)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데 외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좋게 평가받는다, TV를 보면 외모(몸매, 몸무게, 멋지게 옷입기)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식'으로 명명하였다.

이 두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내면화	인식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878	.138	.789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과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진다.	.851	.243	.784
나는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822	.233	.730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800	.242	.699
나는 나의 몸매를 TV 스타들이나 영화배우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763	.164	.609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데 외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202	.831	.732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148	.801	.664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좋게 평가받는다.	.141	.763	.602
TV를 보면 외모(몸매, 몸무게, 멋지게 옷입기)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306	.700	.583
고유값	3.569	2.623	
분산(%)	39.653	29.143	
누적(%)	39.653	68.796	
신뢰도(Cronbach's α)	.902	.812	
전체신뢰도	.880		
KMO와 Bartlett 검정	KMO=.874, $\chi^2=3,009.086$		
	$p<.000$		

5) 외모관리행동의 차원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표 8>과 같다.

외모관리행동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고 3개의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69.016%로 나타났고, 전체신뢰도 계수는 0.911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0.733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을 명명하였다.

요인 1(29.147%)은 외출을 할 땐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눈화장 등)을 하는 편이다, 화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편이다,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제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편이다,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른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부 및 화장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24.708%)는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상과 패션 소품을 잘 활용한다,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잘 따라하는 편이다, 매일 헤어드라이어, 셋팅기, 헤어제품 등으로 머리를 손질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복 및 헤어관리’로 명명하였다.

요인 3(15.160%)은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체중관리’로 명명하였다.

이 세 개의 요인적재 값이 ± 0.5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

item	factor			공통성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 관리	체중 관리	
외출을 할 때엔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눈화장 등)을 하는 편이다.	.848	.161	.192	.783
화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편이다.	.791	.322	.124	.744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784	.285	.150	.718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780	.309	.206	.747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제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편이다.	.538	.473	.183	.546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른다.	.512	.406	.384	.574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상과 패션소품을 잘 활용한다.	.235	.797	.109	.702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218	.793	.066	.680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잘 따라하는 편이다.	.283	.726	.202	.649
매일 헤어드라이어, 셋팅기, 헤어제품 등으로 머리를 손질한다.	.336	.632	.236	.568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159	.076	.893	.828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241	.271	.782	.742
고유값	3.498	2.965	1.819	
분산(%)	29.147	24.708	15.160	
누적(%)	29.147	53.856	69.016	
신뢰도(Cronbach's α)	.896	.820	.733	
전체신뢰도		.911		
KMO와 Bartlett 검정	KMO=.917, $\chi^2=3,908.433$ $p<.000$			

3.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각 항목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각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조사하였으며, <표 9>는 상관관계 검증을 시행한 결과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거부’, ‘비일관성’, ‘회피형’, ‘즉흥형’, ‘적극적 대처행동’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행동은 ‘비일관성’ 및 ‘즉흥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9> 상관관계분석

구분	평균	표준편차	부모지지	거부	구조제공	강요	비일관성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	공격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내면화	인식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관리
부모지지	4.04	.714	1																	
거부	2.47	.571	-.613**	1																
구조제공	3.71	.722	.562**	-.298**	1															
강요	3.03	.897	.471**	-.541**	.216**	1														
비일관성	2.69	.944	-.457**	.530**	-.275**	-.462**	1													
회피형	2.71	.898	-.189**	.345**	-.040	-.112**	.328**	1												
의존형	3.63	.730	.154**	-.021	.201**	.015	-.002	.132**	1											
합리형	3.59	.648	.230**	-.141**	.180**	.074	-.116**	-.231**	.210**	1										
직관형	3.27	.852	.037	.115**	.183**	-.096*	.179**	.248**	.049	-.114**	1									
즉흥형	2.81	.855	-.065	.227**	.043	-.105**	.140**	.242**	-.032	-.265**	.393**	1								
공격적 대처행동	2.61	.841	-.173**	.274**	-.085*	-.239**	.178**	.220**	-.101*	-.151**	.266**	.296**	1							
적극적 대처행동	3.79	.784	.333**	-.249**	.272**	.096*	-.185**	-.269**	.199**	.387**	.010	-.167**	-.031	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3.04	.955	-.274**	.255**	-.136**	-.263**	.286**	.200**	.101*	-.035	.045	.019	.084*	-.085*	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2.44	.893	.235**	.012	.273**	.182**	-.121**	.010	.004	.049	.014	.073	.080*	.185**	-.146**	1				
내면화	3.28	1.058	-.094*	.017	-.027	-.148**	.078	.054	.155**	.075	.087*	-.026	.103*	.010	.409**	-.139**	1			
인식	3.56	.858	-.115**	-.051	-.102*	-.100*	.022	.031	.037	.118**	.066	.054	.080*	.047	.273**	-.324**	.472**	1		
피부 및 화장법	2.81	1.130	.099*	-.110**	.062	-.070	.010	-.137**	.082*	.049	.097*	.030	.012	.102*	.186**	.074	.462**	.181**	1	
의복 및 헤어관리	2.86	1.016	.067	-.011	.031	-.093*	-.048	-.128**	.062	.192**	.060	.045	.091*	.093*	.111**	.095*	.392**	.236**	.692**	1
체중관리	2.44	1.215	-.039	.038	-.083*	-.057	.068	-.107**	.008	.082*	.097*	.038	.069	.072	.144**	.040	.400**	.237**	.508**	.432**

* $p < .05$, ** $p < .01$, *** $p < .001$

4. 청소년에 대한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분석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성별과 한 달 용돈별 구분에서만 부모양육태도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거부($t=4.272, p<.05$)와 비일관성 요인($t=-1.973, p<.05$)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거부 요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기주장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부모와의 마찰이 많아 부모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일관성 요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부모양육태도를 비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감성적이며 예민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부모양육태도를 비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달 용돈별 구분의 경우에 구조제공($F=3.251, p<.01$)과 비일관성 요인($F=3.387, p<.01$)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후분석에서 한 달 용돈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소속 학교별 구분의 경우와 형제(자매) 수 및 보호자별 구분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학교별 구분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모양육태도를 인식함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 수의 경우는 부모양육태도가 형제(자매) 수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정정애(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보호자별 구분은 본 연구의 대상자 618명 중 557명이 부모님에게 양육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부모양육태도				
		부모지지	거부	구조제공	강요	비일관성
성별	남자 ^a	3.98	2.60	3.76	3.02	2.59
	여자 ^b	4.08	2.39	3.68	3.03	2.74
	t	-1.765	4.272***	1.435	-0.147	-1.973*
	평균비교	-	a>b	-	-	b>a
소속 학교	중학교 ^a	4.05	2.45	3.73	3.06	2.65
	고등학교 ^b	4.04	2.49	3.68	2.99	2.73
	t	0.304	-0.945	0.846	0.934	-1.099
	평균비교	-	-	-	-	-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a	4.02	2.45	3.81	2.98	2.58
	5-10만원 미만 ^b	4.03	2.48	3.68	3.03	2.63
	10-15만원 미만 ^c	4.06	2.51	3.66	2.85	2.90
	15-20만원 미만 ^d	4.22	2.49	3.94	3.21	3.04
	20만원 이상 ^e	4.07	2.42	3.54	3.24	2.48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음) ^f	3.97	2.46	3.51	3.10	2.80
	F	0.759	0.231	3.251**	1.702	3.387**
	사후분석	-	-	-	-	-
형제 (자매) 수	1명 ^a	4.04	2.46	3.66	3.07	2.67
	2명 ^b	3.98	2.52	3.83	2.95	2.72
	3명 이상 ^c	4.05	2.40	3.83	2.85	2.59
	없음(외동) ^d	4.14	2.49	3.65	3.05	2.81
	F	0.836	0.659	2.280	1.315	0.810
	사후분석	-	-	-	-	-
보호자	부모님 ^a	4.05	2.47	3.72	3.01	2.68
	아버지 ^b	3.82	2.28	3.49	3.15	2.69
	어머니 ^c	4.07	2.39	3.48	3.30	2.66
	조부모 외 기타 ^d	3.95	2.68	4.00	3.10	2.80
	F	0.583	1.600	2.496	1.110	0.103
	사후분석	-	-	-	-	-
전 체		4.04	2.47	3.71	3.03	2.69

* $p<.05$, ** $p<.01$, *** $p<.001$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1 1>과 같이 모든 변인에서 의사결정유형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회피형($t=3.207, p<.01$)과 즉흥형 요인($t=3.303, p<.01$)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회피형과 즉흥형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속 학교별 구분의 경우에도 회피형($t=2.362, p<.05$)과 즉흥형 요인($t=-3.737, p<.05$)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회피형의 경우 소속 학교별 차이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의사결정에 능숙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회피적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즉흥형의 경우에는 소속 학교별 차이가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의사결정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달 용돈별 구분의 경우에 의존형과 합리형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회피형($F=3.468, p<.01$)에 대한 한 달 용돈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관형($F=3.872, p<.01$)의 경우 15~20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보다 높고, 15~20만원 미만이 해당사항 없음보다 높은 결과로 분석되었다.

즉흥형($F=10.212, p<.01$)의 경우는 한 달 용돈별 차이는 15~20만원 미만이 해당사항 없음보다 높고, 15~20만원 미만이 5~10만원 미만보다 높으며, 15~2

0만원 미만, 5만원 미만, 20만원 이상보다 높고 해당사항 없음이 20만원 이상보다 높으며, 5~1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이 5만원 미만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은 한 달 용돈이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있어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물건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과정이 하나의 의사결정임을 가정할 때, 용돈 액수가 많은 청소년 집단 일수록 의류를 구매하는데 있어 합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관적, 즉흥적으로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나타난 이경옥 외(2006)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유사하다.

형제(자매)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의존형 요인($F=3.426, p<.05$)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형제(자매)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가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의 경우보다 의사결정에 있어 의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형제(자매)는 평소 서로를 모방함과 동시에 의존하며 서로의 행동에 제한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서로를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보호자에 따른 구분에서는 회피형($F=5.795, p<.01$)과 즉흥형 요인($F=4.970, p<.01$)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결정유형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익숙해진 습관이다. 따라서, 보호자에 따라 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받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회피형 요인의 경우 어머니나 부모님보다 조부모 외 기타가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 외 기타에 청소년이 양육되는 경우 가정의 심리적 환경수준이 낮아 회피적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가족만족도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허정철(2008)의 연구와 유사하다.

즉흥형 요인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아버지에게

양육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섬세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여성의 성향보다 과감하고 빠르게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려는 남성의 성향에 영향을 편향적으로 받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 1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사결정유형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의사결정유형				
		회피형	의존형	합리형	직관형	즉흥형
성별	남자 ^a	2.86	3.56	3.62	3.31	2.96
	여자 ^b	2.62	3.68	3.58	3.25	2.73
	t	3.207**	-1.913	0.840	0.918	3.303**
	평균비교	a>b	-	-	-	a>b
소속 학교	중학교 ^a	2.80	3.62	3.56	3.27	2.68
	고등학교 ^b	2.63	3.65	3.62	3.27	2.94
	t	2.362*	-0.420	-1.079	0.106	-3.737***
	평균비교	a>b	-	-	-	b>a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a	2.82	3.64	3.59	3.24	2.69
	5-10만원 미만 ^b	2.65	3.68	3.62	3.20	2.68
	10-15만원 미만 ^c	2.83	3.60	3.67	3.40	2.99
	15-20만원 미만 ^d	2.91	3.63	3.34	3.71	3.42
	20만원 이상 ^e	2.32	3.36	3.56	3.32	3.23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음) ^f	2.57	3.69	3.63	3.07	2.65
	F	3.468**	1.569	1.744	3.872**	10.212***
사후분석	-	-	-	d>b, d>f	d>f, d>b, d>a, e>f, e>b, e>a	
형제 (자매) 수	1명 ^a	2.68	3.62	3.60	3.22	2.76
	2명 ^b	2.67	3.64	3.54	3.38	2.80
	3명 이상 ^c	2.93	3.90	3.50	3.24	2.94
	없음(외동) ^d	2.76	3.51	3.68	3.36	2.98
	F	1.519	3.426*	1.110	1.341	1.883
사후분석	-	c>d	-	-	-	
보호자	부모님 ^a	2.68	3.66	3.61	3.24	2.77
	아버지 ^b	3.17	3.52	3.54	3.35	3.54
	어머니 ^c	2.67	3.40	3.52	3.70	3.04
	조부모 외 기타 ^d	3.43	3.33	3.29	3.50	3.10
	F	5.795**	2.503	1.756	3.137*	4.970**
사후분석	d>c, d>a	-	-	-	b>a	
전 체		2.71	3.63	3.59	3.27	2.81

* $p<.05$, ** $p<.01$, *** $p<.001$

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성별, 한 달 용돈별 구분에서만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격적 대처행동($t=5.389, p<.01$)의 성별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기질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그러한 기질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t=3.415, p<.01$)의 성별 차이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들이 사회적지지 추구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나타낸 신현숙, 구본용(2001)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던 과거에 비해 성별에 따른 특성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t=4.842, p<.01$)의 성별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회피적 대처방식이 우세하게 나타난 김정원, 신은영(2001b)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의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성별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문제해결 지향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달 용돈과 형제(자매)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F=3.218, p<.05, F=2.750, p<.01$)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

분석에서 각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한 달 용돈의 경우 평점을 통하여 유추하여 볼 때 용돈을 받지 않거나 1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10만원 이상의 많은 용돈을 받는 경우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용돈이 많은 경우 청소년들은 용돈을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타인과의 만남, 교류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대처하거나 해소하고 용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회들이 줄어들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 학교 및 보호자별 구분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p>.05$).

<표 1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공격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성별	남자 ^a	2.84	3.72	2.79	2.60
	여자 ^b	2.48	3.83	3.19	2.35
	t	5.389***	-1.682	-4.842***	3.415**
	평균비교	a>b	-	b>a	a>b
소속 학교	중학교 ^a	2.64	3.78	3.10	2.46
	고등학교 ^b	2.58	3.80	2.99	2.43
	t	0.842	-0.301	1.460	0.464
	평균비교	-	-	-	-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a	2.65	3.86	3.05	2.50
	5-10만원 미만 ^b	2.57	3.86	3.22	2.47
	10-15만원 미만 ^c	2.74	3.72	2.88	2.35
	15-20만원 미만 ^d	2.39	3.57	2.74	2.64
	20만원 이상 ^e	2.60	3.61	2.86	2.25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음) ^f	2.63	3.70	3.00	2.31
	F	1.195	2.130	3.218**	1.531
사후분석	-	-	-	-	
형제 (자매) 수	1명 ^a	2.61	3.83	3.04	2.41
	2명 ^b	2.59	3.76	2.86	2.49
	3명 이상 ^c	2.47	3.68	3.25	2.45
	없음(외동) ^d	2.73	3.74	3.17	2.54
	F	1.092	0.797	2.750*	0.600
사후분석	-	-	-	-	
보호자	부모님 ^a	2.60	3.79	3.06	2.44
	아버지 ^b	2.58	4.03	3.00	2.15
	어머니 ^c	2.65	3.65	3.02	2.38
	조부모 외 기타 ^d	2.78	3.68	2.73	2.75
	F	0.294	0.795	0.743	1.298
사후분석	-	-	-	-	
전 체	2.61	3.79	3.04	2.44	

* $p<.05$, ** $p<.01$, *** $p<.001$

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3>과 같이 모든 변인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내면화($t=-8.470, p<.001$), 인식 요인($t=-4.222, p<.001$)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내면화와 인식의 성별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예인들의 외모를 본인의 이상적 외모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 중 여학생의 내면화 수준이 더욱 높게 나타난 이미숙(2008), 김수진, 위은하(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소속 학교별 구분의 경우에도 내면화 요인($t=2.010, p<.05$)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내면화의 소속 학교별 차이는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높은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내면화가 고등학생이 중학교보다 높게 나타난 이미숙(2008), 김수진, 위은하(2015), 송경자, 이미숙(2009)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중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비해 가치관과 자아가 불확실하여,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이상적 외모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고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달 용돈별 구분의 경우에도 내면화 요인($F=2.958, p<.05$)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사후분석 결과 내면화에서 한 달 용돈별 구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형제(자매)수에 따른 구분에서는 인식 요인($F=4.382, p<.01$)만 집단별로 차

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에서 인식의 형제(자매)수별 차이는 3명 이상이 2명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비교를 통해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더 많이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자에 따른 구분에서는 인식 요인($F=7.190, p<.001$)만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에서 인식의 보호자별 차이는 아버지가 부모님보다 높으며 부모님이 조부모 외 기타보다 높고, 어머니가 조부모 외 기타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조부모 외 기타에 양육되는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부모님에게 양육되는 청소년들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더 적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내면화	인식
성별	남자 ^a	2.83	3.36
	여자 ^b	3.54	3.67
	t	-8.470***	-4.222***
	평균비교	b>a	b>a
소속 학교	중학교 ^a	3.36	3.61
	고등학교 ^b	3.19	3.51
	t	2.010*	1.577
	평균비교	a>b	-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a	3.41	3.55
	5-10만원 미만 ^b	3.29	3.56
	10-15만원 미만 ^c	3.40	3.59
	15-20만원 미만 ^d	3.20	3.33
	20만원 이상 ^e	3.02	3.63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음) ^f	2.91	3.68
	F	2.958*	0.966
	사후분석	-	-
형제 (자매)수	1명 ^a	3.25	3.59
	2명 ^b	3.21	3.34
	3명 이상 ^c	3.52	3.82
	없음(외동) ^d	3.32	3.53
	F	1.339	4.382**
	사후분석	-	c>b
보호자	부모님 ^a	3.27	3.55
	아버지 ^b	3.12	4.23
	어머니 ^c	3.59	3.81
	조부모 외 기타 ^d	3.08	2.94
	F	1.159	7.190***
사후분석	-	b>a>d, c>d	
전 체		3.28	3.56

* $p<.05$, *** $p<.001$

5)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4>와 같이 성별, 한 달 용돈, 보호자별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분에서는 모든 요인들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피부 및 화장법($t=-16.953, p<.001$), 의복 및 헤어관리($t=-6.663, p<.001$), 체중관리($t=-8.338, p<.05$)의 성별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피부, 화장, 헤어, 의복, 체중 관리 등의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위은하(2015), 한동조(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소속 학교별 구분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없었다($p>.05$).

한 달 용돈별 구분의 경우에는 체중관리 요인($F=2.523, p<.05$)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분석에서 체중관리에 대한 한 달 용돈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점을 통하여 각 변인별로 대략적 경향을 살펴보면 20만원 이상의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 경우 체중관리를 포함한 외모관리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용돈이 적은 학생들에 비해 용돈이 많은 학생들이 의복관리태도와 얼굴 및 헤어관리 태도에서 외모관리에 더 적극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김정미, 정명선, 2012)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형제(자매)수에 따른 구분의 경우에는 모든 요인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p>.05$).

보호자에 따른 구분에서는 피부 및 화장법과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이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피부 및 화장법($F=3.291, p<.05$)의 보호

자별 차이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고, 부모님이 아버지보다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의복 및 헤어관리($F=3.797, p<.05$)의 보호자별 차이는 어머니가 조부모 외 기타보다 높고, 부모님이 조부모 외 기타보다 높은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모관리행동이 어머니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조부모 외 기타에게 양육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14>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특성 차이분석

인구통계적 변인		외모관리행동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관리	체중관리
성별	남자 ^a	1.98	2.51	1.96
	여자 ^b	3.30	3.07	2.72
	t	-16.953***	-6.663***	-8.338*
	평균비교	b>a	b>a	b>a
소속 학교	중학교 ^a	2.87	2.86	2.50
	고등학교 ^b	2.76	2.86	2.39
	t	1.232	-0.006	1.136
	평균비교	-	-	-
한 달 용돈	5만원 미만 ^a	2.76	2.87	2.41
	5-10만원 미만 ^b	2.92	2.85	2.38
	10-15만원 미만 ^c	2.77	2.93	2.42
	15-20만원 미만 ^d	2.94	2.91	2.52
	20만원 이상 ^e	2.99	3.15	3.03
	해당 사항 없음 (받지 않음) ^f	2.44	2.55	2.27
	F	2.179	1.989	2.532*
사후분석	-	-	-	
형제 (자매) 수	1명 ^a	2.83	2.85	2.48
	2명 ^b	2.81	2.85	2.24
	3명 이상 ^c	2.74	2.84	2.53
	없음(외동) ^d	2.79	2.97	2.48
	F	0.131	0.332	1.307
사후분석	-	-	-	
보호자	부모님 ^a	2.83	2.89	2.45
	아버지 ^b	1.94	2.77	2.62
	어머니 ^c	3.04	2.96	2.34
	조부모 외 기타 ^d	2.61	2.13	2.20
	F	3.291*	3.797*	0.426
사후분석	c>b, a>b	c>d, a>d	-	
전 체		2.81	2.86	2.44

* $p<.05$, *** $p<.001$

5.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거부’ 요인과 ‘강요’ 요인 및 ‘비일관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제공’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은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제공’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지지’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지지’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제공’ 요인과 ‘비일관성’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거부’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조제공’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지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부모지지는 회피형에 구조제공은 회피형, 의존형, 직관형, 즉흥형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에게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지지는 자녀에게 애정과 사랑을 주며 무조건적인 배려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고 존중하는 양육태도이며, 구조제공은 부모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양육하며 문제의 해결책 탐구 또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양육태도이다.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 자녀들이 부모의 애정에 기대거나 부모가 제시한 문제해결의 방법에 그대로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되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양육태도를 가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허정철(2010)은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게 되며 부정적일 때 의존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녀들을 과잉통제를 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직관적, 의존적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곽한수, 이수림(2020)의 연구결과와도 맥락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회피형	(상수)	-.097	.433		-.224	.823
	부모지지	-.004	.069	-.003	-.063	.950
	거부	.506	.082	.322	6.185	.000***
	구조제공	.117	.056	.094	2.097	.036*
	강요	.162	.046	.161	3.525	.000***
	비일관성	.244	.043	.257	5.658	.000***
		R=.417	R ² =.174	F=27.754***		
의존형	(상수)	2.122	.377		5.634	.000***
	부모지지	.149	.060	.145	2.458	.014*
	거부	.093	.071	.072	1.300	.194
	구조제공	.164	.048	.162	3.385	.001**
	강요	-.017	.040	-.021	-.422	.673
	비일관성	.047	.038	.061	1.261	.208
		R=.230	R ² =.053	F=6.843***		
의사결정유형	(상수)	2.854	.333		8.558	.000***
	부모지지	.175	.054	.193	3.270	.001**
	거부	-.020	.063	-.018	-.317	.751
	구조제공	.064	.043	.071	1.499	.134
	강요	-.038	.035	-.053	-1.076	.282
	비일관성	-.016	.033	-.023	-.477	.634
		R=.242	R ² =.058	F=7.596***		
직관형	(상수)	1.037	.429		2.417	.016*
	부모지지	.097	.069	.081	1.406	.160
	거부	.160	.081	.107	1.974	.049*
	구조제공	.276	.055	.234	5.007	.000***
	강요	-.028	.045	-.030	-.626	.531
	비일관성	.190	.043	.210	4.436	.000***
		R=.314	R ² =.099	F=13.401***		
즉흥형	(상수)	.826	.437		1.889	.059
	부모지지	.081	.070	.068	1.152	.250
	거부	.413	.083	.276	4.996	.000***
	구조제공	.119	.056	.100	2.110	.035*
	강요	.018	.046	.018	.378	.706
	비일관성	.055	.044	.061	1.267	.206
		R=.263	R ² =.069	F=9.085***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거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요’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지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제공’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부’ 요인과 ‘강요’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일관성’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지지’ 요인과 ‘강요’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요인과 ‘거부’ 요인, ‘구조제공’ 요인 및 ‘강요’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 일수록 공격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고,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스트레스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양육태도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날 때 청소년들은 소극·회피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지지 추구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므로 공격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표현을 하기 쉽다(정주영, 2014). 거부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느껴지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더욱 가중시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도 공격적으로 표출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적극적 대처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Nijhof & Engels(2007)도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연구한 조복순, 안상근(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하며,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표 16>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공격적 대처 행동	(상수)	2.060	.426		4.839	.000***
	부모지지	.032	.068	.027	.464	.643
	거부	.310	.080	.210	3.851	.000***
	구조제공	-.005	.055	-.004	-.095	.924
	강요	-.120	.045	-.128	-2.669	.008**
	비일관성	.016	.042	.018	.377	.706
			R=.295	R ² =.087	F=11.707**	
적극적 대처 행동	(상수)	3.049	.387		7.887	.000***
	부모지지	.256	.062	.233	4.121	.000***
	거부	-.154	.073	-.113	-2.114	.035*
	구조제공	.132	.050	.122	2.662	.008**
	강요	-.104	.041	-.119	-2.538	.011*
	비일관성	-.033	.039	-.040	-.867	.386
			R=.367	R ² =.135	F=19.035**	
소극· 회피적 대처 행동	(상수)	3.520	.475		7.409	.000***
	부모지지	-.192	.076	-.143	-2.514	.012*
	거부	.047	.090	.028	.523	.601
	구조제공	.028	.061	.021	.460	.645
	강요	-.118	.050	-.111	-2.344	.019*
	비일관성	.162	.047	.160	3.415	.001**
			R=.344	R ² =.118	F=16.444**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	(상수)	-1.288	.436		-2.951	.003**
	부모지지	.267	.070	.214	3.816	.000***
	거부	.530	.082	.339	6.433	.000***
	구조제공	.242	.056	.196	4.325	.000***
	강요	.195	.046	.196	4.217	.000***
	비일관성	-.056	.043	-.059	-1.283	.200
			R=.388	R ² =.151	F=21.735***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거부’ 요인과 ‘강요’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거부’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지지’ 요인과 ‘강요’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청소년들은 부모양육태도를 부모지지, 거부, 강요로 인식할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와 강요로 인식하는 경우 대중매체 등에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해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신체상을 확립하여 자신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시기이며(Featherstone, 2010), 가족과 또래에 의한 외모에 대한 평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Guiney & Furlong, 1999). 때문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외모의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발전시키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인 양육태도인 부모지지도 인식 요인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무조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은정, 2012). 따라서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하여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되 너무 관대하지 않은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표 17>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인	(상수)	4.899	.551		8.890	.000***	
	내면화	부모지지	-.163	.088	-.110	-1.838	.067
		거부	-.281	.104	-.152	-2.698	.007**
		구조제공	.054	.071	.037	.763	.445
	강요	-.197	.058	-.167	-3.376	.001**	
	비일관성	.047	.055	.042	.849	.396	
			R=.186	R ² =.035	F=4.398**		
	인식	(상수)	5.956	.443		13.450	.000***
		부모지지	-.207	.071	-.173	-2.916	.004**
		거부	-.369	.084	-.246	-4.410	.000***
구조제공		-.059	.057	-.049	-1.033	.302	
강요		-.137	.047	-.143	-2.924	.004**	
비일관성		-.005	.044	-.006	-.122	.903	
		R=.227	R ² =.051	F=6.639***			

* $p<.05$, ** $p<.01$, *** $p<.001$

4)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강요’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지지’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요’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회귀식의 유의성은 .106으로 확인되었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량도 .011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F값이 유의하지 않아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의복 및 헤어관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게 거부 또는 강요를 받는 청소년들은 피부 및 화장법, 의복 및 헤어관리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인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은 평소 외모에 대해서도 부모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므로 자신의 외모를 가꿀 수 있는 의복이나 헤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모에게 거부당하거나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없거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 외모관리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중관리의 경우는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체중의 경우 유전적인 요인이나 식습관의 동일화 등으로 부모와 체형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부모가 성장기의 청소년에 체형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중관리는 부모보다는 또래 친구 또는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의 체중조절은 왜곡된 비만에 대한 인식과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한 강현주(2012)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유사함을 보인다.

<표 18>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피부 및 화장법	(상수)	3.479	.586		5.940	.000***
	부모지지	.161	.094	.102	1.715	.087
	거부	-.360	.111	-.182	-3.256	.001**
	구조제공	.015	.075	.009	.196	.845
	강요	-.234	.062	-.186	-3.770	.000***
	비일관성	.084	.058	.070	1.437	.151
	R=.211 R ² =.044 F=5.678***					
외모 관리 행동	(상수)	3.052	.530		5.755	.000***
	부모지지	.193	.085	.136	2.269	.024*
	거부	.015	.100	.009	.151	.880
	구조제공	-.037	.068	-.026	-.540	.589
	강요	-.209	.056	-.185	-3.719	.000***
	비일관성	-.089	.053	-.083	-1.682	.093
	R=.171 R ² =.029 F=3.690**					
체중 관리	(상수)	2.695	.640		4.209	.000***
	부모지지	.086	.103	.051	.838	.402
	거부	-.017	.121	-.008	-.139	.890
	구조제공	-.153	.082	-.091	-1.859	.064
	강요	-.057	.068	-.042	-.835	.404
	비일관성	.066	.064	.051	1.031	.303
	R=.106 R ² =.011 F=1.381 0.229					

* $p < .05$, ** $p < .01$, *** $p < .001$

5)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의존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직관형’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리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의사결정유형 중 ‘인식’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을 의존적으로 하거나 직관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의존적 또는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기보다 대중매체 등을 통해 보여지는 외모에 대한 타인의 관점을 그대로 내면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유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기준에만 집중하여, 끊임없는 외모관리행동과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외모에 중요성도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읽고 판단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사결정의존성에 대해 연구

한 하문선, 김지현(2013)은 여자 청소년들이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이상적 미의 기준을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해져 의사결정상황에서 타인의 시각이나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함을 보였다.

<표 19>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요인	내면화	(상수)	1.941	.383		5.070	.000**
		회피형	.045	.051	.038	.883	.378
		의존형	.191	.060	.132	3.184	.002**
		합리형	.087	.070	.053	1.233	.218
		직관형	.124	.054	.100	2.272	.023*
		즉흥형	-.069	.055	-.056	-1.248	.213
			R=.191	R ² =.037	F=4.645**		
	인식	(상수)	2.407	.312		7.711	.000***
		회피형	.036	.041	.038	.885	.377
		의존형	.001	.049	.000	.000	1.000
		합리형	.198	.057	.150	3.456	.001**
		직관형	.048	.044	.048	1.080	.281
즉흥형		.066	.045	.066	1.460	.145	
		R=.160	R ² =.026	F=3.211** .007			

* $p < .05$, ** $p < .01$, *** $p < .001$

6)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직관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존형’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피형’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합리형’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흥형’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회피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관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형’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의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사결정을 직관

적으로 하는 청소년일수록 피부 및 화장법과 체중관리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형의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회피형의 청소년들의 경우 모든 외모관리행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의사결정을 의존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은 피부 및 화장법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는 다른 외모관리행동에 비해 즉각적인 외모의 변화를 보여준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청소년과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즉흥형의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을 할 때에도 타인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외모관리행동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주된 외모 고민이 여드름 등의 피부관리이며, 화장이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문화임을 고려할 때 주변의 또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외모관리행동인 피부 및 화장법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청소년들은 외모관리행동 역시 하나의 의사결정상황으로 인식하여 의복을 구매하거나 헤어를 관리하고 피부를 가꾸며 화장을 하는 등의 상황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커 외모관리행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20> 의사결정유형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피부 및 화장법	(상수)	2.182	.407		5.367	.000***
	회피형	-.236	.054	-.187	-4.391	.000***
	의존형	.155	.064	.100	2.440	.015*
	합리형	.012	.075	.007	.160	.873
	직관형	.168	.058	.127	2.914	.004**
	즉흥형	.040	.059	.030	.675	.500
			R=.218	R ² =.047	F=6.088***	
외모 관리 행동	(상수)	1.395	.362		3.852	.000***
	회피형	-.150	.048	-.132	-3.130	.002**
	의존형	.055	.057	.039	.964	.335
	합리형	.295	.066	.188	4.432	.000***
	직관형	.087	.051	.073	1.699	.090
	즉흥형	.117	.052	.099	2.237	.026*
			R=.254	R ² =.064	F=8.424***	
체중 관리	(상수)	1.644	.440		3.736	.000***
	회피형	-.176	.058	-.130	-3.038	.002**
	의존형	.008	.069	.005	.121	.904
	합리형	.142	.081	.076	1.761	.079
	직관형	.173	.063	.121	2.765	.006**
	즉흥형	.059	.064	.042	.929	.353
			R=.183	R ² =.034	F=4.257** 0.001	

* $p < .05$, ** $p < .01$, *** $p < .001$

7)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공격적 대처행동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모의 사회적 이상을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외모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민감성은 이상적 외모와의 차이와 외모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부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우울감, 정체감 등을 경험하게 되어 심한 경우 비행, 일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적극적 대처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으로 외모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이나 이상적인 외모를 내면화하는 경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외모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거나 타인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상수)	1.645	.275		5.992	.000***	
	내 면 화	공격적 대처행동	.101	.046	.080	2.183	.029*
		적극적 대처행동	.087	.050	.065	1.735	.08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436	.041	.393	10.598	.00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18	.045	-.100	-2.652	.008**
			R=.429	R ² =.184	F=34.516***		
	인 식	(상수)	2.914	.223		13.062	.000***
		공격적 대처행동	.093	.038	.091	2.463	.014*
		적극적 대처행동	.140	.041	.128	3.440	.00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206	.033	.229	6.159	.00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309	.036	-.322	-8.531	.000***	
		R=.425	R ² =.180	F=33.691***			

* $p < .05$, ** $p < .01$, *** $p < .001$

8)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5$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요인은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요인은 $p < .001$ 유의수준에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나머지 요인들은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 요인에 대해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과 의복 및 헤어관리를 많이 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긍정적인 청소년들은 자신을 가꾸기 위한 행동에도 적극성을 보이며 자신의 외모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하는 경우 모든 요인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학업, 대인관계 등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모 관리를 선택해, 과도하게 외모에 집착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피부 및 화장 법	(상수)	1.265	.316		4.008	.000***
	공격적 대처행동	-.012	.053	-.009	-.222	.825
	적극적 대처행동	.149	.058	.103	2.581	.010*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246	.047	.208	5.208	.00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09	.051	.086	2.134	.033*
		R=.236	R ² =.056	F=9.006***		
외모 관리 행동	(상수)	1.528	.286		5.340	.000***
	공격적 대처행동	.091	.048	.076	1.894	.059
	적극적 대처행동	.115	.052	.089	2.197	.028*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134	.043	.126	3.121	.00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04	.046	.091	2.229	.026*
		R=.194	R ² =.038	F=6.017**		
체중 관리	(상수)	1.036	.343		3.021	.003**
	공격적 대처행동	.080	.058	.055	1.377	.169
	적극적 대처행동	.122	.063	.079	1.939	.05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194	.051	.152	3.768	.00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060	.056	.044	1.068	.286
		R=.182	R ² =.033	F=5.252**		

* $p < .05$, ** $p < .01$, *** $p < .001$

6.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분석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을 매개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각각의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23>은 종속변수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를 사용하였고, <표 24>는 종속변수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회피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6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67 > \beta = -.164$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 지지' 변수는 ' $\beta = -.110 < \beta = -.117$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50$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강요' 변수는 ' $\beta = -.167 > \beta = -.16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 매개변수는 '거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6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67 > \beta = -.164$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회귀식의 F값이 유의하지 않아($p < .05$)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의사결정유형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부모양육태도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유형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내 면 화	(상수)	4.899	.551		8.890	.000***	
	1 부모지지	-.163	.088	-.110	-1.838	.067	
	거부	-.281	.104	-.152	-2.698	.007**	
	구조제공	.054	.071	.037	.763	.445	
	강요	-.197	.058	-.167	-3.376	.001**	
	비일관성	.047	.055	.042	.849	.396	
	R=.186 R ² =.035 F=4.398**						
	(상수)	4.907	.551		8.913	.000***	
	2 부모지지	-.162	.088	-.110	-1.836	.067	
	거부	-.320	.107	-.173	-2.987	.003**	
	구조제공	.045	.071	.031	.634	.527	
	강요	-.210	.059	-.178	-3.559	.000***	
	비일관성	.028	.056	.025	.491	.624	
	회피형	.078	.051	.066	1.515	.130	
	R=.196 R ² =.038 F=4.055** .001 Δ R ² =.004 Δ F=2.295 .130						
(상수)	4.368	.557		7.838	.000***		
3 부모지지	-.200	.088	-.135	-2.279	.023*		
거부	-.304	.103	-.164	-2.957	.003**		
구조제공	.013	.070	.009	.186	.853		
강요	-.193	.058	-.164	-3.349	.001**		
비일관성	.035	.054	.031	.642	.521		
의존형	.250	.058	.173	4.288	.000***		
R=.251 R ² =.063 F=6.834*** Δ R ² =.028 Δ F=18.389**							
(상수)	4.455	.581		7.668	.000**		
4 부모지지	-.190	.089	-.128	-2.135	.033*		
거부	-.278	.104	-.150	-2.677	.008**		
구조제공	.044	.071	.030	.624	.533		
강요	-.191	.058	-.162	-3.283	.001**		
비일관성	.049	.055	.044	.897	.370		
합리형	.155	.067	.095	2.336	.020*		
R=.208 R ² =.043 F=4.601*** Δ R ² =.009 Δ F=5.455* .020							
(상수)	4.787	.552		8.669	.000***		
5 부모지지	-.173	.088	-.117	-1.959	.051		
거부	-.298	.104	-.161	-2.863	.004**		
구조제공	.024	.072	.016	.335	.737		
강요	-.194	.058	-.164	-3.331	.001**		
비일관성	.026	.056	.023	.469	.639		
직관형	.108	.052	.087	2.092	.037*		
R=.204 R ² =.042 F=4.414*** Δ R ² =.007 Δ F=4.376* .037							
(상수)	4.925	.553		8.906	.000***		
6 부모지지	-.160	.089	-.108	-1.806	.071		
거부	-.268	.106	-.145	-2.522	.012*		
구조제공	.058	.071	.039	.812	.417		
강요	-.197	.058	-.167	-3.364	.001**		
비일관성	.048	.055	.043	.879	.380		
즉흥형	-.031	.051	-.025	-.612	.541		
R=.188 R ² =.035 F=3.724** Δ R ² =.001 Δ F=0.375 .541							

* $p < .05$, ** $p < .01$, *** $p < .001$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회피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의존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 = -.173 < \beta = -.20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으나, ‘거부’ 변수는 ‘ $\beta = -.246 > \beta = -.24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요’ 변수는 ‘ $\beta = -.143 > \beta = -.14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 매개변수는 ‘거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 = -.173 < \beta = -.18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부’ 변수도 ‘ $\beta = -.246 < \beta = -.257$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43 > \beta = -.14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매개변수

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 지지’ 변수는 ‘ $\beta = -.173 < \beta = -.179$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부’ 변수도 ‘ $\beta = -.246 < \beta = -.271$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고, ‘강요’ 변수 역시 ‘ $\beta = -.143 < \beta = -.14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 매개변수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24>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인식	(상수)	5.956	.443		13.450	.000***	
	부모지지	-.207	.071	-.173	-2.916	.004**	
	거부	-.369	.084	-.246	-4.410	.000***	
	구조제공	-.059	.057	-.049	-1.033	.302	
	강요	-.137	.047	-.143	-2.924	.004**	
	비일관성	-.005	.044	-.006	-.122	.903	
	R=.227 R ² =.051 F=6.639***						
	(상수)	5.964	.442		13.495	.000***	
	부모지지	-.207	.071	-.172	-2.917	.004**	
	거부	-.408	.086	-.272	-4.744	.000***	
구조제공	-.068	.057	-.057	-1.190	.234		
강요	-.150	.047	-.157	-3.166	.002**		
비일관성	-.024	.045	-.027	-.539	.590		
회피형	.078	.041	.081	1.881	.060		
R=.239 R ² =.057 F=6.145*** Δ R ² =.005 Δ F=3.537 .060							
(상수)	5.772	.453		12.733	.000***		
부모지지	-.220	.071	-.183	-3.089	.002**		
거부	-.377	.084	-.251	-4.509	.000***		
구조제공	-.073	.057	-.061	-1.274	.203		
강요	-.136	.047	-.142	-2.898	.004**		
비일관성	-.010	.044	-.010	-.216	.829		
의존형	.087	.047	.074	1.834	.067		
R=.238 R ² =.057 F=6.115*** Δ R ² =.005 Δ F=3.365 .067							
(상수)	5.387	.464		11.620	.000***		
부모지지	-.242	.071	-.202	-3.413	.001**		
거부	-.365	.083	-.243	-4.409	.000***		
구조제공	-.072	.056	-.060	-1.269	.205		
강요	-.130	.046	-.136	-2.789	.005**		
비일관성	-.002	.044	-.002	-.051	.959		
합리형	.199	.053	.151	3.753	.000***		
R=.270 R ² =.073 F=7.998*** Δ R ² =.021 Δ F=14.083***							
(상수)	5.844	.443		13.197	.000***		
부모지지	-.218	.071	-.181	-3.073	.002**		
거부	-.386	.084	-.257	-4.624	.000***		
구조제공	-.089	.058	-.075	-1.533	.126		
강요	-.134	.047	-.140	-2.871	.004**		
비일관성	-.026	.045	-.029	-.580	.562		
직관형	.108	.042	.107	2.601	.010*		
R=.249 R ² =.062 F=6.713*** Δ R ² =.010 Δ F=6.765* .010							
(상수)	5.879	.443		13.284	.000***		
부모지지	-.215	.071	-.179	-3.029	.003**		
거부	-.408	.085	-.271	-4.790	.000***		
구조제공	-.070	.057	-.059	-1.227	.220		
강요	-.139	.047	-.145	-2.968	.003**		
비일관성	-.011	.044	-.012	-.240	.811		
즉흥형	.093	.041	.093	2.286	.023*		
R=.244 R ² =.059 F=6.442*** Δ R ² =.008 Δ F=5.226* .023							

*p<.05, **p<.01, ***p<.001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각각의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20>은 종속변수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를 사용하였고, <표 21>는 종속변수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70$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67 > \beta = -.156$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6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67 > \beta = -.12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52 > \beta = -.117$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였으며, ‘강요’ 변수도 ‘ $\beta = -.167 > \beta = -.14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거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5>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4.899	.551		8.890	.000***
	부모지지	-.163	.088	-.110	-1.838	.067
	거부	-.281	.104	-.152	-2.698	.007**
	구조제공	.054	.071	.037	.763	.445
	강요	-.197	.058	-.167	-3.376	.001**
	비일관성	.047	.055	.042	.849	.396
R=.186 R ² =.035 F=4.398** .001						
2	(상수)	4.667	.560		8.335	.000***
	부모지지	-.166	.088	-.112	-1.884	.060
	거부	-.316	.105	-.170	-3.006	.003**
	구조제공	.055	.071	.037	.774	.439
	강요	-.184	.059	-.156	-3.134	.002**
	비일관성	.045	.055	.040	.818	.413
공격적 대처행동	.113	.052	.090	2.164	.031*	
R=.205 R ² =.042 F=4.467** ΔR^2 =.007 ΔF =4.681* .031						
3	(상수)	4.790	.579		8.277	.000***
	부모지지	-.172	.090	-.116	-1.914	.056
	거부	-.275	.105	-.149	-2.634	.009**
	구조제공	.049	.071	.034	.692	.489
	강요	-.193	.059	-.164	-3.293	.001**
	비일관성	.048	.055	.043	.870	.385
적극적 대처행동	.036	.058	.027	.621	.535	
R=.188 R ² =.035 F=3.726** .001 ΔR^2 =.001 ΔF =0.386 .555						
4	(상수)	3.275	.528		6.200	.000***
	부모지지	-.074	.082	-.050	-.908	.364
	거부	-.303	.096	-.163	-3.164	.002**
	구조제공	.041	.065	.028	.632	.528
	강요	-.143	.054	-.121	-2.649	.008**
	비일관성	-.028	.051	-.025	-.550	.58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461	.043	.416	10.716	.000***	
R=.433 R ² =.187 F=23.487*** ΔR^2 =.153 ΔF =114.840***						
5	(상수)	4.745	.553		8.581	.000***
	부모지지	-.131	.089	-.088	-1.464	.144
	거부	-.217	.107	-.117	-2.029	.043*
	구조제공	.083	.072	.057	1.160	.247
	강요	-.174	.059	-.147	-2.945	.003**
	비일관성	.040	.055	.036	.729	.466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20	.051	-.101	-2.352	.019*	
R=.208 R ² =.043 F=4.614*** ΔR^2 =.009 ΔF =5.534* .019						

* $p < .05$, ** $p < .01$, *** $p < .001$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 = -.173 < \beta = -.175$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았으며, ‘거부’ 변수는 ‘ $\beta = -.246 < \beta = -.26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강요’ 변수도 ‘ $\beta = -.143 > \beta = -.132$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방식’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 = -.173 > \beta = -.133$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거부’ 변수는 ‘ $\beta = -.246 < \beta = -.25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요’ 변수도 ‘ $\beta = -.143 > \beta = -.11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지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

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만 ' $\beta = -.246 > \beta = -.149$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거부'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6>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인식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인식	(상수)	5.956	.443		13.450	.000***	
	부모지지	-.207	.071	-.173	-2.916	.004**	
	거부	-.369	.084	-.246	-4.410	.000***	
	구조제공	-.059	.057	-.049	-1.033	.302	
	강요	-.137	.047	-.143	-2.924	.004**	
	비일관성	-.005	.044	-.006	-.122	.903	
	R=.227 R ² =.051 F=6.639**						
	(상수)	5.771	.450		12.827	.000***	
	부모지지	-.210	.071	-.175	-2.964	.003**	
	거부	-.397	.084	-.264	-4.701	.000***	
구조제공	-.058	.057	-.049	-1.028	.304		
강요	-.126	.047	-.132	-2.685	.007**		
비일관성	-.007	.044	-.008	-.156	.876		
공격적 대처행동	.090	.042	.088	2.147	.032*		
R=.242 R ² =.059 F=6.334*** Δ R ² =.007 Δ F=4.609*.032							
(상수)	5.690	.464		12.267	.000***		
부모지지	-.230	.072	-.191	-3.193	.001**		
거부	-.356	.084	-.237	-4.242	.000***		
구조제공	-.070	.057	-.059	-1.232	.219		
강요	-.128	.047	-.134	-2.721	.007**		
비일관성	-.002	.044	-.003	-.056	.955		
적극적 대처행동	.087	.046	.080	1.892	.059		
R=.239 R ² =.057 F=6.153*** Δ R ² =.006 Δ F=3.578.059							
(상수)	5.076	.446		11.389	.000***		
부모지지	-.159	.069	-.133	-2.313	.021*		
거부	-.381	.081	-.254	-4.719	.000***		
구조제공	-.066	.055	-.055	-1.199	.231		
강요	-.108	.045	-.113	-2.369	.018*		
비일관성	-.046	.043	-.050	-1.068	.286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250	.036	.278	6.886	.000***		
R=.346 R ² =.120 F=13.856*** Δ R ² =.068 Δ F=47.420***							
(상수)	5.604	.430		13.038	.000***		
부모지지	-.134	.069	-.112	-1.936	.053		
거부	-.224	.083	-.149	-2.688	.007**		
구조제공	.008	.056	.006	.135	.893		
강요	-.084	.046	-.088	-1.828	.068		
비일관성	-.021	.043	-.023	-.485	.628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273	.040	-.285	-6.915	.000***		
R=.347 R ² =.120 F=13.925*** Δ R ² =.069 Δ F=47.814***							

*p<.05, **p<.01, ***p<.001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을 매개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각각의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27>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을 사용하였고, <표 28>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9>는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82 > \beta = -.144$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강요’ 변수도 ‘ $\beta = -.186 > \beta = -.166$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매개변수는 ‘거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의존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존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

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합리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합리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82 < \beta = -.192$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86 > \beta = -.18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즉흥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즉흥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표 27>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피부 및 화장법	1	(상수)	3.479	.586		5.940	.000***
		부모지지	.161	.094	.102	1.715	.087
		거부	-.360	.111	-.182	-3.256	.001**
		구조제공	.015	.075	.009	.196	.845
		강요	-.234	.062	-.186	-3.770	.000***
		비일관성	.084	.058	.070	1.437	.151
			R=.211	R ² =.044	F=5.678**		
	2	(상수)	3.465	.583		5.946	.000***
		부모지지	.161	.094	.102	1.717	.086
		거부	-.285	.113	-.144	-2.508	.012*
		구조제공	.032	.075	.021	.428	.669
		강요	-.210	.062	-.166	-3.364	.001**
비일관성		.120	.060	.101	2.022	.044*	
		R=.237	R ² =.056	F=6.043***	$\Delta R^2=.012$	$\Delta F=7.563^* .006$	
3	(상수)	3.258	.600		5.431	.000***	
	부모지지	.146	.094	.092	1.545	.123	
	거부	-.370	.111	-.187	-3.343	.001**	
	구조제공	-.002	.076	-.002	-.032	.975	
	강요	-.232	.062	-.184	-3.746	.000***	
	비일관성	.079	.058	.066	1.353	.177	
		R=.221	R ² =.049	F=5.206***	$\Delta R^2=.004$	$\Delta F=2.766 .097$	
4	(상수)	3.375	.620		5.443	.000***	
	부모지지	.155	.095	.098	1.632	.103	
	거부	-.360	.111	-.182	-3.247	.001**	
	구조제공	.012	.075	.008	.164	.870	
	강요	-.233	.062	-.185	-3.741	.000***	
	비일관성	.084	.058	.071	1.446	.149	
		R=.212	R ² =.045	F=4.770***	$\Delta R^2=.000$	$\Delta F=0.262 .609$	
5	(상수)	3.355	.587		5.717	.000***	
	부모지지	.150	.094	.095	1.594	.111	
	거부	-.380	.111	-.192	-3.429	.001**	
	구조제공	-.018	.077	-.012	-.241	.809	
	강요	-.231	.062	-.183	-3.725	.000***	
	비일관성	.061	.059	.051	1.033	.302	
		R=.227	R ² =.052	F=5.556***	$\Delta R^2=.007$	$\Delta F=4.774^* .029$	
6	(상수)	3.423	.587		5.830	.000***	
	부모지지	.156	.094	.098	1.656	.098	
	거부	-.388	.113	-.196	-3.441	.001**	
	구조제공	.007	.075	.004	.088	.930	
	강요	-.235	.062	-.187	-3.790	.000***	
	비일관성	.080	.058	.067	1.372	.171	
		R=.216	R ² =.047	F=4.998***	$\Delta R^2=.002$	$\Delta F=1.569 .211$	

* $p<.05$, ** $p<.01$, *** $p<.001$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136 > \beta=.135$ ’임을 확인할 수 있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강요’ 변수도 ‘ $\beta=-.185 > \beta=-.16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 매개변수는 ‘부모지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의존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의존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의존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강요’ 변수만 ‘ $\beta=-.185 > \beta=-.17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직관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직관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직관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 중 ‘즉흥형’

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즉흥형’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으며($p < .05$), 따라서 외모관리행동 중 ‘즉흥형’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8>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3.052	.530		5.755	.000***
	부모지지	.193	.085	.136	2.269	.024*
	거부	.015	.100	.009	.151	.880
	구조제공	-.037	.068	-.026	-.540	.589
	강요	-.209	.056	-.185	-3.719	.000***
	비일관성	-.089	.053	-.083	-1.682	.093
R=.171 R ² =.029 F=3.690** .003						
2	(상수)	3.039	.527		5.761	.000***
	부모지지	.193	.085	.135	2.274	.023*
	거부	.084	.103	.048	.822	.411
	구조제공	-.021	.068	-.015	-.306	.760
	강요	-.187	.056	-.165	-3.310	.001**
	비일관성	-.055	.054	-.052	-1.028	.304
회피형	-.137	.049	-.121	-2.784	.006**	
R=.204 R ² =.041 F=4.400*** ΔR^2 =.012 ΔF =7.749** .006						
3	(상수)	2.899	.544		5.333	.000***
	부모지지	.183	.086	.128	2.134	.033*
	거부	.008	.100	.005	.084	.933
	구조제공	-.049	.069	-.035	-.706	.480
	강요	-.208	.056	-.184	-3.699	.000***
	비일관성	-.092	.053	-.086	-1.745	.081
의존형	.072	.057	.052	1.263	.207	
R=.178 R ² =.032 F=3.344** .003 ΔR^2 =.003 ΔF =1.595 .207						
4	(상수)	2.240	.553		4.053	.000***
	부모지지	.143	.085	.101	1.695	.091
	거부	.021	.099	.012	.211	.833
	구조제공	-.055	.067	-.039	-.819	.413
	강요	-.198	.055	-.175	-3.578	.000***
	비일관성	-.084	.052	-.078	-1.622	.105
합리형	.285	.063	.182	4.497	.000***	
R=.246 R ² =.060 F=6.542*** ΔR^2 =.031 ΔF =20.223***						
5	(상수)	2.976	.532		5.589	.000***
	부모지지	.186	.085	.131	2.184	.029*
	거부	.003	.100	.002	.033	.974
	구조제공	-.057	.069	-.041	-.822	.411
	강요	-.207	.056	-.183	-3.685	.000***
	비일관성	-.103	.054	-.096	-1.918	.056
직관형	.074	.050	.062	1.476	.141	
R=.181 R ² =.033 F=3.444** .002 ΔR^2 =.003 ΔF =2.177 .141						
6	(상수)	3.005	.532		5.651	.000***
	부모지지	.189	.085	.133	2.213	.027*
	거부	-.008	.102	-.005	-.082	.935
	구조제공	-.044	.068	-.031	-.637	.524
	강요	-.210	.056	-.185	-3.738	.000***
	비일관성	-.092	.053	-.086	-1.740	.082
즉흥형	.057	.049	.048	1.162	.246	
R=.177 R ² =.031 F=3.301** .003 ΔR^2 =.002 ΔF =1.350 .246						

*p<.05, **p<.01, ***p<.001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의사결정유형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1번 모형인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아($p < .05$) 더 이상의 매개효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였다.

<표 29>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체 중 관 리	1	(상수)	2.695	.640		4.209	.000***	
		부모지지	.086	.103	.051	.838	.402	
		거부	-.017	.121	-.008	-.139	.890	
		구조제공	-.153	.082	-.091	-1.859	.064	
		강요	-.057	.068	-.042	-.835	.404	
		비일관성	.066	.064	.051	1.031	.303	
			R=.106	R ² =.011	F=1.381	.229		
	2	(상수)	2.676	.635		4.213	.000***	
		부모지지	.085	.102	.050	.836	.403	
		거부	.083	.124	.039	.667	.505	
		구조제공	-.130	.082	-.077	-1.588	.113	
		강요	-.025	.068	-.018	-.366	.714	
비일관성		.114	.065	.088	1.751	.080		
		R=.169	R ² =.029	F=2.995**	.007	ΔR^2 =.017	ΔF =10.950**	.001
3	(상수)	2.622	.657		3.991	.000***		
	부모지지	.081	.103	.048	.784	.433		
	거부	-.020	.121	-.009	-.164	.869		
	구조제공	-.158	.083	-.094	-1.908	.057		
	강요	-.056	.068	-.041	-.825	.409		
	비일관성	.064	.064	.050	1.004	.316		
		R=.107	R ² =.012	F=1.190	.310	ΔR^2 =.000	ΔF =0.246	.620
4	(상수)	2.156	.675		3.196	.001**		
	부모지지	.053	.103	.031	.514	.607		
	거부	-.013	.120	-.006	-.108	.914		
	구조제공	-.165	.082	-.098	-2.011	.045*		
	강요	-.049	.068	-.037	-.731	.465		
	비일관성	.069	.064	.053	1.083	.279		
		R=.144	R ² =.021	F=2.153*	.046	ΔR^2 =.010	ΔF =5.959*	.015
5	(상수)	2.532	.640		3.954	.000***		
	부모지지	.071	.102	.042	.692	.489		
	거부	-.042	.121	-.020	-.347	.728		
	구조제공	-.196	.084	-.117	-2.350	.019*		
	강요	-.052	.068	-.038	-.772	.440		
	비일관성	.036	.065	.028	.558	.577		
		R=.149	R ² =.022	F=2.306*	.033	ΔR^2 =.011	ΔF =6.866*	.009
6	(상수)	2.651	.642		4.127	.000***		
	부모지지	.082	.103	.048	.795	.427		
	거부	-.039	.123	-.018	-.314	.753		
	구조제공	-.159	.083	-.095	-1.928	.054		
	강요	-.058	.068	-.042	-.848	.397		
	비일관성	.063	.064	.049	.984	.326		
		R=.112	R ² =.012	F=1.286	.262	ΔR^2 =.001	ΔF =0.812	.368

*p<.05, **p<.01, ***p<.001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수로 한 모형 1과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5의 유의확률 결과를 확인하면 각각의 분석결과에 따라 영향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표 30>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표 31>은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를 사용하였다. <표 32>는 종속변수로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공격적 대처행동’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이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 = -.102 < \beta = -.133$ ’임을 확인하였으며 유의하지 않았고, ‘거부’ 변수는 ‘ $\beta = -.182 < \beta = -.188$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요' 변수는 ' $\beta = -.186 > \beta = -.161$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거부' 변수는 ' $\beta = -.182 < \beta = -.219$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요' 변수도 ' $\beta = -.186 < \beta = -.207$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0>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피부 및 화장법	1	(상수)	3.479	.586		5.940	.000***
		부모지지	.161	.094	.102	1.715	.087
		거부	-.360	.111	-.182	-3.256	.001**
		구조제공	.015	.075	.009	.196	.845
		강요	-.234	.062	-.186	-3.770	.000***
	비일관성	.084	.058	.070	1.437	.151	
			R=.211	R ² =.044	F=5.678**		
	2	(상수)	3.406	.597		5.705	.000***
		부모지지	.160	.094	.101	1.702	.089
		거부	-.371	.112	-.188	-3.313	.001**
		구조제공	.015	.075	.010	.198	.843
		강요	-.230	.062	-.182	-3.678	.000***
		비일관성	.083	.058	.070	1.426	.154
	공격적 대처행동	.035	.056	.026	.635	.525	
			R=.212	R ² =.045	F=4.794***	ΔR^2 =.001	$\Delta F=0.404$.525
3	(상수)	3.220	.614		5.241	.000***	
	부모지지	.140	.095	.088	1.465	.144	
	거부	-.347	.111	-.175	-3.128	.002**	
	구조제공	.003	.076	.002	.046	.964	
	강요	-.225	.062	-.179	-3.611	.000***	
	비일관성	.087	.058	.072	1.486	.138	
적극적 대처행동	.085	.061	.059	1.391	.165		
		R=.218	R ² =.047	F=5.061***	ΔR^2 =.003	$\Delta F=1.934$.165	
4	(상수)	2.569	.598		4.293	.000***	
	부모지지	.211	.092	.133	2.280	.023*	
	거부	-.372	.108	-.188	-3.438	.001**	
	구조제공	.007	.074	.005	.101	.919	
	강요	-.203	.061	-.161	-3.335	.001**	
	비일관성	.042	.058	.035	.729	.466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259	.049	.218	5.303	.000***		
		R=.294	R ² =.086	F=9.629***	ΔR^2 =.042	$\Delta F=28.126$ **	
5	(상수)	3.657	.587		6.227	.000***	
	부모지지	.124	.095	.079	1.314	.189	
	거부	-.434	.114	-.219	-3.808	.000***	
	구조제공	-.019	.076	-.012	-.246	.805	
	강요	-.261	.063	-.207	-4.162	.000***	
	비일관성	.092	.058	.077	1.574	.116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38	.054	.109	2.554	.011*		
		R=.233	R ² =.054	F=5.861***	ΔR^2 =.010	$\Delta F=6.522$.011	

* $p < .05$, ** $p < .01$, *** $p < .001$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136 > \beta=.13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요’ 변수도 ‘ $\beta=-.185 > \beta=-.173$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지지’와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인 ‘적극적 대처행동’ 요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 < .05$).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부모지지’ 변수는 ‘ $\beta=.136 < \beta=.155$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았으나, ‘강요’ 변수는 ‘ $\beta=-.185 > \beta=-.170$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비일관성’ 변수는 ‘ $\beta=-.083 < \beta=-.104$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강요’ 변수에 대해서만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으로 한 매개 회귀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의 β 값을

비교하면 ‘강요’ 변수만 $\beta = -.185 < \beta = -.206$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매개변수는 ‘부모양육태도’의 모든 요인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표 31>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의복 및 헤어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의복 및 헤어관리	(상수)	3.052	.530		5.755	.000***	
	부모지지	.193	.085	.136	2.269	.024*	
	거부	.015	.100	.009	.151	.880	
	구조제공	-.037	.068	-.026	-.540	.589	
	강요	-.209	.056	-.185	-3.719	.000***	
	비일관성	-.089	.053	-.083	-1.682	.093	
	R=.171 R ² =.029 F=3.690** .003						
	(상수)	2.833	.539		5.257	.000***	
	부모지지	.190	.085	.133	2.235	.026*	
	거부	-.018	.101	-.010	-.177	.860	
구조제공	-.036	.068	-.026	-.533	.594		
강요	-.196	.056	-.173	-3.481	.001**		
비일관성	-.091	.053	-.084	-1.719	.086		
공격적 대처행동	.106	.050	.088	2.120	.034*		
R=.191 R ² =.036 F=3.841** .001 ΔR^2 =.007 ΔF =4.494* .034							
(상수)	2.782	.556		5.004	.000***		
부모지지	.171	.086	.120	1.978	.048*		
거부	.029	.100	.016	.287	.774		
구조제공	-.048	.068	-.034	-.709	.479		
강요	-.200	.056	-.176	-3.542	.000***		
비일관성	-.086	.053	-.080	-1.627	.104		
적극적 대처행동	.089	.055	.068	1.599	.110		
R=.183 R ² =.033 F=3.509* .002 ΔR^2 =.004 ΔF =2.558 .110							
(상수)	2.551	.550		4.642	.000***		
부모지지	.220	.085	.155	2.595	.010*		
거부	.008	.100	.005	.085	.932		
구조제공	-.041	.068	-.029	-.603	.547		
강요	-.192	.056	-.170	-3.431	.001**		
비일관성	-.112	.053	-.104	-2.113	.035*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142	.045	.134	3.177	.002**		
R=.212 R ² =.045 F=4.803*** ΔR^2 =.016 ΔF =10.093* .002							
(상수)	3.214	.532		6.045	.000***		
부모지지	.160	.086	.112	1.860	.063		
거부	-.052	.103	-.029	-0.501	.617		
구조제공	-.067	.069	-.048	-.978	.329		
강요	-.234	.057	-.206	-4.116	.000***		
비일관성	-.082	.053	-.076	-1.554	.121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26	.049	.111	2.574	.010*		
R=.199 R ² =.040 F=4.207*** ΔR^2 =.010 ΔF =6.624* .010							

* $p < .05$, ** $p < .01$, *** $p < .001$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종속변수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로 한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나, 1번 모형인 독립변수 ‘부모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지 않아($p < .05$) 더 이상의 매개효과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였다.

<표 32>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관리에 미치는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sig.
1	(상수)	2.695	.640		4.209	.000***
	부모지지	.086	.103	.051	.838	.402
	거부	-.017	.121	-.008	-.139	.890
	구조제공	-.153	.082	-.091	-1.859	.064
	강요	-.057	.068	-.042	-.835	.404
	비일관성	.066	.064	.051	1.031	.303
		R=.106	R ² =.011	F=1.381	.229	
2	(상수)	2.521	.652		3.868	.000***
	부모지지	.083	.103	.049	.812	.417
	거부	-.043	.122	-.020	-.350	.726
	구조제공	-.152	.082	-.091	-1.855	.064
	강요	-.046	.068	-.034	-.682	.496
	비일관성	.064	.064	.050	1.011	.312
	공격적 대처행동	.084	.061	.058	1.386	.166
		R=.119	R ² =.014	F=1.473	.185	ΔR^2 =.003 ΔF =1.922 .166
3	(상수)	2.196	.669		3.281	.001**
	부모지지	.044	.104	.026	.427	.670
	거부	.008	.121	.004	.070	.944
	구조제공	-.175	.082	-.104	-2.118	.035*
	강요	-.040	.068	-.029	-.583	.560
	비일관성	.071	.064	.055	1.121	.263
	적극적 대처행동	.164	.067	.106	2.455	.014*
		R=.144	R ² =.021	F=2.164*	.045	ΔR^2 =.010 ΔF =6.025* .014
4	(상수)	2.076	.663		3.130	.002**
	부모지지	.120	.103	.070	1.169	.243
	거부	-.025	.120	-.012	-.208	.835
	구조제공	-.158	.082	-.094	-1.933	.054
	강요	-.036	.068	-.026	-.531	.596
	비일관성	.037	.064	.029	.585	.559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176	.054	.138	3.252	.001**
		R=.167	R ² =.028	F=2.931**	.008	ΔR^2 =.017 ΔF =10.574** .001
5	(상수)	2.833	0.644		4.403	.000***
	부모지지	.057	.104	.034	.552	.581
	거부	-.074	.125	-.035	-.593	.554
	구조제공	-.179	.083	-.106	-2.148	.032*
	강요	-.078	.069	-.057	-1.130	.259
	비일관성	.072	.064	.056	1.126	.260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108	.059	.079	1.821	.069
		R=.128	R ² =.016	F=1.708	.117	ΔR^2 =.005 ΔF =3.315 .069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요인과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3~18세의 남녀 청소년을 6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 특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성별과 한 달 용돈별 구분에서만 부모양육태도 특성의 차이가 있었다. 의사결정유형 특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의사결정유형 특성에 차이가 있었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특성에서는 성별, 한 달 용돈별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특성의 경우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외모관리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에서는 성별, 한 달 용돈, 보호자별 구분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는 의사결정유형 중 회피형에 거부, 강요, 구조제공, 비밀관성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의존형은 부모양육태도를 부모지지, 구조제공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의존적인 선택을 하였다. 합리형은 부모지지만 정의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으며, 직관형은 거부,

구조제공, 비밀관성에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흥형은 거부, 구조제공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은 거부는 정의, 강요는 부의 영향이 있었다. 적극적 대처행동은 부모지지와 구조제공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부와 강요는 부의 영향이 있었다. 소극·회피적 행동은 청소년의 부모지지, 강요, 비밀관성이 정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행동은 비밀관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에 거부, 강요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 요인은 부모지지, 거부, 강요와 부의 영향을 미쳤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거부, 강요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및 헤어관리는 부모지지, 강요가 부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의사결정유형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은 의사결정유형의 의존형, 직관형에 부의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유형 중 합리형이 인식 요인에 부의 영향으로 조사되었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회피형이 부의 영향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존형, 직관형은 정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및 헤어관리는 회피형이 부의 영향이 있으며, 합리형, 의존형은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체중관리는 회피형에 부의 영향이, 직관형은 정의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중 내면화 요인은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정의 유의미한 영향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 요인은 공격적 대처행동,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정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은 부의 영향이 있다. 외모관리행동 중 피부 및 화장법은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으로 나타났고, 의복 및 헤어관리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공격적 대처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체중 관리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정의 유의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의사결정유형은 거부, 강요에 대해서만 부분매개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지지, 강요, 거부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외모관리행동 미치는 영향에서 의사결정유형은 거부, 강요에 대해서만 부분매개하며,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부모지지, 강요에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가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외모관리행동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결정에 있어 자녀들이 부모에 애정에 기대거나 부모가 제시한 문제해결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등 합리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있어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적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였고,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 인식될수록 공격적이거나 소극□회피적인 대처행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발달시키는 변인으로 그 자체가 자녀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청소년들은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내면화 수준,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중용을 지키는 양육태도를 지키며 자녀가 외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13~18세의 청소년으로 연구 대상의 범위가 국한되어 있어 부모양육과 관련이 있는 아동기, 후기 청소년기로 대상을 넓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인 대학생을 포함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연령별 특성에 따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외모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등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의사결정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 각 변인들의 범위를 외모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보다 구체적인 영향 관계 측정하여 각 변인 간의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 심층 면담 등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가영희, 조민자, 임성우(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6(4), pp. 31-42.
- 강동훈(2011), 여성의 미적 신체활동 참여와 몰입이 신체적 자기개념과 외모 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 벨리댄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문희, 정은의(2003), 걱정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사고 억제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pp. 439-460.
- 강평미(2017), 사회성,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현주(2012), 한국 청소년의 체중인식과 체중조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의 지평*, 9(1), pp. 24-35.
- 고선형(2015), 성인의 자아존중감, 외모관리행동 및 신체이미지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희망을 매개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아라(2020), 성인여성의 연령대에 따른 차이연령, 소비가치, 화장행동과 화장품 구매 행동 비교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6(1), pp. 15-39.
- 고진경, 윤태영, 박재현(2009),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의과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학교육*, 19(3), pp. 225-233.
- 고향자(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 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2000),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미결정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 pp. 109-124.

- 고희자(2016),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공미혜, 이영숙(2009), *청소년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이 외모인식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2), pp. 23-42.
- 곽환수, 이수림(2020), *부모의 과잉통제가 자녀의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연구*, 20(7), pp. 675-702.
- 권미경(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15(2), pp. 164-170.
- 권수영, 정혜선(2008), *일개 제조업 근로자의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 증상과 대처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7(1), pp. 34-44.
- 김경보(2016), *신체 이미지 관련 뉴스 및 댓글의 논조가 여대생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언론학보*, 60(6), pp. 36-67.
- 김경희(2002), *한·중·일 여대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피부관리·화장행동·구매행동 비교 : 서울, 북경, 동경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승, 함혜수(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9), pp. 440-450.
- 김기현, 정연자(2014), *남성 네일 케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2(6), pp. 821-829.
- 김나경(2019), *초등학생의 작업가치관과 사회적지지,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리, 김주덕(2005), *화장행위가 갖는 심리학적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 화장품학회지*, 31(1), pp. 127-134.
- 김미경(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 :*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9(4), pp. 21-38.
- 김미지(2019), 20, 30대 중국 여성 관광객들의 화장 행동에 따른 한국 화장품의 구매동기와 구매 만족도, 한국미용학회지, 25(5), pp. 1212-1220.
- 김미화(2006), 화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4(2), pp. 143-156.
- 김민선(2013), 40대 여성의 헤어행동과 미용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4(2), pp. 213-231.
- 김범석(2016), 의사결정스타일과 개인의 행태, 그리고 경영성과의 관계 : 인지편향, 위험성향 및 윤리성향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서연(2018),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우(2013), 여성 외모의 아름다움 인식에 대한 한중일 비교문화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우(2020), 한국 여자 청소년의 화장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복식, 70(4), pp. 65-79.
- 김수진, 위은하(2015),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비교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9(1), pp. 1-14.
- 김아날리아, 이수경, 고애란(2006), 남녀 프리틴세대의 외모관리행동 영향요인 : 미디어관여, 신체만족,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11), pp. 1538-1549.
- 김영희, 강은정(2016),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8(1), pp. 261-284.
- 김옥희, 안현의(2008), NEO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스트레스연구*, 16(2), pp. 69-77.
- 김윤(2007), *사회문화적 압력, 미적고정관념의 내면화 및 대상화된 신체인식이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주, 김정일, 남승규, 노길광(2011), *일반의사결정유형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소비자·광고*, 12(4), pp. 751-770.
- 김정미, 정명선(2012), *성역할 정체감과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외모관리 태도에 미치는 영향 - 남자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22, pp. 53-67.
- 김정애, 김용숙(2002),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1), pp. 55-73.
- 김정원, 신은영(2001a),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성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7, pp. 55-69.
- 김정원, 신은영(2001b),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인과 성격에 따른 대처방식 연구*, *사회 교육과학연구*, 5(1), pp. 19-33.
- 김지신, 박성연(1997),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한국아동학회*, 18(1), pp. 125-142.
- 김지자, 김인아, 안현미(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력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12(1), pp. 177-209.
- 김진희, 백선아(2013), *고등학생의 성장환경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의 유형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1), pp. 1-14.
- 김태명(2016),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 자기결정성 동기적 관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 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pp. 313-333.
- 김현정(2009), *남녀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역할정체감과 외모관련태도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남(1997), *의상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정신분석*, 8(2), pp. 163-177.
- 김희주, 정여주(2018), *자기애가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에 미치는 영향 :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정서표현 양가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pp. 338-339.
- 남상인(2003),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의사결정 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pp. 543-558.
- 남현아, 조은영(2016),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2), pp. 107-119.
- 류현혜(2007), *노년 여성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맹성준, 한창근(2017),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4), pp. 238-268.
- 문희정, 박길순(2013), *중년여성의 자기표현과 외모복플렉스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9(3), pp. 532-544.
- 민하영(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2015),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부갈등에 대한 회피적 대처행동의 영향*, *아동학회지*, 36(2), p. 131-143.
- 박광희(2012), *인지연령,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6(7), pp. 756-766.
- 박광희, 유화숙(2012), *외모관리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 간의 인과관계 분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1), pp. 51-63.
- 박근정, 김영삼(2017), *패션모델의 가치관과 쇼핑성향이 의복평가기준에 미치는 영향*, *복식*, 67(8), pp. 34-50.

- 박길순, 한동조, 김수경(2011), 관찰방법을 통해 살펴본 남자청소년들의 외모 관리행동 양상분석 제1보-의복, 헤어,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조형 미디어학*, 14(4), pp. 19-24.
- 박미은(2019), *뷰티헬스케어행동, 미적 이미지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심리적 영향의 관계에 미치는 연구*, 영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정, 오두남, 함영림, 임승주, 임영미(2012),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역량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8(2), pp. 53-59.
- 박선영(2019), *여자대학생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화장행동 및 신체매력지각과의 관계: 이미지메이킹을 매개변수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8(1), pp. 141-156.
- 박숙현, 박현주(2011), 과시소비성향에 따른 뷰티관여도의 연령별 차이 비교,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4), pp. 67-81.
- 박은아(2003), *화장의 심리사회적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42(2), pp. 105-127.
- 박은정, 정명선(2010), 여대생의 자기애적 성격과 자아존중감이 외모 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8(4), pp. 717-730.
- 박은정(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 신체이미지 및 신체불만족이 외모향상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희(2015),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자아의식과 외모관리행동, *패션비즈니스*, 19(4), pp. 21-36.
- 박은희, 구양숙(201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패션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5), pp. 811-820.

- 박은희, 조현주(2014), 외모관리 기대가치가 화장관심도와 화장품 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 패션 비즈니스, 18(1), pp. 22-35.
- 박정임, 유제민, 김청송(2016), 외모를 강조하는 대중매체에의 과다노출이 여자청소년의 신체이미지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7), pp. 167-187.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pp. 107-119.
- 박혜원(2013), 자기표현, 외모관리행동 및 외모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2005), 노인이 지각한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노인복지연구, 28, pp. 379-402.
- 백인선(2007), 직장인의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비교가 외모정보활용·외모관리 및 패션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10(8), pp. 237-333.
- 선미정(2020),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온라인·오프라인 폭력의 구조적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은모, 오현석, 최윤미, 주지현(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학부모와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기대 차이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경자, 이미숙(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지각적, 태도적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2), pp. 97-110.
- 송소원(2001), 자아존중감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학생생활연구, 14, pp. 1-22.

- 송연화, 오경화(2011), 청소년의 헤어제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3(2), pp. 1-16.
- 신현숙, 구분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9, pp. 189-225.
- 심우엽(2012), 고등학생의 외모만족도와 행복감 관계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과, 교원교육, 28(2), pp. 101-121.
- 심재숙(2013), 중년남성의 신체만족도와 메이크업 인식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현영, 변영순(2012), 일부 여대생의 체중조절행위와 영향 요인, 기본간호
학회지, 19(2), pp. 190-200.
- 양희숙, 유은주, 윤천성(2017), 청소년의 외모 관심도와 색조화장품의 탐색적
연구, 뷰티산업연구, 11(2), pp. 85-98
- 오미정(2000),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유형,
아동간호학회지, 6(3), pp. 423-436.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pp. 1-15.
- 위은하(2015),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신체비교, 신체만족과 외모관리행동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1), pp. 13-29.
- 유계숙, 신동우(2013), 대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 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4(6), pp. 3849-3869.
- 이경옥, 재미경, 김민정(2006), 청소년의 충동구매행동 및 관련 요인분석 -
의류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9(1), pp. 23-43.
-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규영(2013),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관계,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6(1), pp. 34-44.
- 이길환, 서정민, 이일우(2012), 대학생의 통제위치가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4(3), pp. 299-314.
- 이나현, 류은정(2011),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스포츠의류 구매 행동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4), pp. 350-360.
- 이명희, 송원영(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4(6), pp. 945-955.
- 이미라, 전향신(2020), 부모의 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그릇,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 의 구조적 관계 :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연구*, 20(14), pp. 779-805.
- 이미숙(2008),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내면화가 청소년들의 신체 이미지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6), pp. 96-109.
- 이미영(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64, pp. 115-135.
- 이민지, 정성지, 안미선(2015),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외모관심도, 외모관리행동, 외모복플렉스, 얼굴만족도,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9(3), pp. 323-336.
- 이서영, 박대훈(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Grit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범죄심리연구*, 16(1), pp. 139-158.
-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순희, 이경옥, 김순옥(2009), 피부 관리가 이용고객의 정신 건강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5(1), pp. 155-167.

- 이승희, 박길순(2011),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 *복식문화연구*, 19(5), pp. 1075-1087.
- 이영나, 김광웅(2001), 가정 내 갈등상황에서 청소년의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3(1), pp. 125-140.
- 이유중(2010),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매력인지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종순(2008), 신체만족에 따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 양상 분석, *한국미용학회지*, 14(2), pp. 384-395.
- 이지영(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 및 자아정체감과 의사결정유형,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0(1), pp. 79-100.
- 이지영(2010),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스트레스연구*, 18(3), pp. 219-227.
- 이지영, 박혜정(2013), 자아존중감, 외모 비교, 미디어 관심이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 신체 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3), pp. 1-17.
- 이현옥(2008), 대인관련 외모요인이 기능성화장품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자, 문경원, 김영수(2007),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 조사, *생물교육*, 35(2), pp. 328-336.
- 이혜경(2011), 여자고등학생의 성형수술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pp. 126-136.
- 임숙자(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 의복행동변인과 사회심리 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우경(2019), 외모관리에 대한 태도, 규범, 행동통제가 외모관리의 의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혜빈(2016), 한국형 의사결정유형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7(3), pp. 441-461.
- 전용민(2003), 여자 청소년의 영상매체 이용도, 사회적 가치와 의복 및 신체 태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정명선(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존중감이 미용 성형수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16(3), pp. 734-741.
- 정교영, 신희천(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st Questionnaire; K-PSCQ)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pp. 1287-1305.
- 정미실(2013), 화장태도, 신체가치, 의복행동 간의 관계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2(4), pp. 677-691.
- 정선영(2017), 여자 청소년의 신체관련변인, 자기통제, 신체자존감이 섭식장애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8(6), pp. 1403-1414.
- 정원주(1997), 아동기 스트레일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유진, 고진강(2016),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연구, 24(4), pp. 296-302.
- 정윤조(2016),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정애(2008), 부모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이 자기조절 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주영(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pp. 237-263.
- 조결자, 이명희(2010), 중학생의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 및 자아효능감의 관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6(2), pp. 120-127.
- 조미진, 김성남(2019), 생활체육 참여자의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뷰티관리행동,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5(3), pp. 427-444.
- 조복순, 안상근(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4), pp. 225-253.
- 조선영(2014), 성인여성의 생활연령과 지각연령의 차이가 외모관리행동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선(2012),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발달지원 연구*, 1(2), pp. 223-239.
- 조은혜(2012), 상담훈련생의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연구 : 음악심리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은석, 박미연, 김가애(2008), 과제중 유·무 및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체형인식, 신체활동정도, 정신건강, 건강생활형태,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8(4), pp. 245-255.
- 최인선, 주은지(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0), pp. 169-206.
- 최진(2016), 부모양육태도 불일치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희진(2004),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경연(2011),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감각추구 성향이 청소년의 헤어스타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과 니트*, 9(1), pp. 97-106.

- 한동조(2008),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양상 분석, 한국 뷰티아트학회지, 6(1), pp. 91-106.
- 한동조, 김수경, 박길순(2012), 관찰방법을 통해 살펴본 남자청소년들의 외모 관리행동 양상분석 제2보 - 몸매관리, 피부관리,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5(1). pp. 225-232.
- 한미숙, 이윤정(2007), 부모의 외모관련 양육유형과 대학생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따른 외모만족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9(4), pp. 247-256.
- 하문선, 김지현(2013), 초기 여자청소년의 신체적 매력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의 관계 - 신체만족과 의존성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14(3), pp. 345-368.
- 허묘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묘연, 옥정(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심상건강증진학회지, 13(3), p. 117.
- 허윤희, 배현숙(2012), 노인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외모관리 행동분석, 한국 미용학회지, 18(2), pp. 360-370.
- 허정철(2008), 가족 기능과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유형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5(5), pp. 181-210.
- 허정철(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9), pp. 504-513.
- 홍금희(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 및 신체이미지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0(2), pp. 348-357.
- 홍수남(2013),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 관리행동,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예은, 이지민(2020),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수용과 공감능력의 이중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pp. 3-22.
- 황윤정(2007),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정, 유태순(2010),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자아존중감, 신체매력 지각이 체중 및 의복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4(11), pp. 1923-1932.

국외문헌

- Arroba, T.(1977), *Style of decision-making and their use : An empirical study*,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5(2), pp. 149-158.
- Arroba, T.(1978), *Decision-making style as a function of occupational group, decision content,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1(3), pp. 219-226.
- Brown. T. A., Cash. T. F. & Mikula. P. J.(1990), *Attitudinal body image assessment:factor analysis of the body-self relations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1/2), pp. 135-144.
-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 pp. 1-103.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pp. 169-208.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 75(1), pp. 43–88.
- Featherstone, M.(2010), *Body image and affect in consumer culture*, *Body and Society*, 16(1), pp. 193–221.
- Guiney, K. M. & Furlong, N. E.(1999), Correlates of body satisfaction and self–concept in third and sixth graders, *Current Psychology: A Journal for Diverse Perspectives on Diverse Psychological Issues*, 18(4), pp. 353–367.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14(2), pp. 119–133.
-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rmer, S.(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pp. 81–89.
-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 in context*,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mpany.
- Nijhof, K. S. & Engles, R. C. M. E.(2007), *Parenting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the expression of homesickness*, *Journal of Adolescence*, 30(5), pp. 709–720.
- Lazarus, R. S.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 Co.
- Loo, R.(2000),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General Decision–Making Style Invento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9(5), pp. 895–905.
- Symonds, P. M.(1937), *Some Basic Concept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0(1/4), pp. 195–206.
- Roach, M. E. & Eicher, J. B.(1965),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 order*, New York : Wiley.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pp. 226-235.
- Scott, S. G. & Bruce, R. A.(1995), *Decision-Making Style: The
Development and Assessment of a New Measure* ,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5), pp. 818-831.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5(2), pp. 175-235.
- Thunholm, P.(2004), *Decision-making style : habit, style or bo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pp. 931-944.
- Thunholm, P.(2009), *Military leader and followers - do they have different
decision style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0(4), pp. 317-324.

기타 자료

스트레스 -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e31e64492424f0db27dfecf983052c8>

(검색일자 : 2020. 05. 01)

의사결정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941&cid=42140&categoryId=42140>, (검색일자 : 2020. 04. 28)

청소년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5866&cid=62841&categoryId=62841>, (검색일자 : 2020. 04. 21)

뷰티경제(2015), “우리도 화장할 권리가 있어요” 10대 청소년 화장 실태 조사

<http://www.theb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332>

(검색일자 : 2020. 05. 04)

통계청(2019), *청소년 통계 - 2019*.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8), *설문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BSTRACT

Effects of Decision–Making Types and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ts

Lee You Lim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a period when experiencing rapid change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in the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the adolescence has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increased interest in one's own appearance due to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a wish for breaking away from controlled environment. The adolescence also causes stress by arousing psychological conflicts, experiences difficulties to make concrete decisions between various values of individual and society, and may cause an inferiority complex of appearanc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s.

Thus, learning about independent and rational decision–making, positive methods to cope with stress from various environmental changes, positive

approach to appearance, and correct perception of body image might be a very important development task in adolescence. The environmental factor having effects on this development process in adolescence is home environment, and the parenting attitude of it has the greatest effects on i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decision-making types and stress coping method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t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618 male & female adolescents in 13–18, enrolled in middle & high school.

The parenting attitude included five factors such as parent support, refusal, provision of structure, coercion, and inconsistency while the decision-making types included five factors such as avoidant-type, dependent-type, rational-type, intuitive-type, and spontaneous-type. The stress coping method included four factors such as aggressive coping behavior, active coping behavior,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included two factors such as internalization and perception while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included three factors such as skin & makeup technique, clothing & haircare, and weight control.

Using the SPSS 25.0 Statistics Program for the data analysis,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nfluenc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 toward adolescents,

decision-making types, stress coping metho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decision-making type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refusal and coerc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aggressive coping behavior of stress coping method. The active cop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rest variables except for inconsistency while the parent support, coercion, and inconsistenc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The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ll the variables except for inconsistency. The refusal and coerc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kin & makeup techniqu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ile the parent support and coerc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lothing & haircare.

Second, in the influence relations of decision-making types,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ts, the dependent-type and intuitive-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while the rational type of decision-making typ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ption. The avoidant-type, dependent-type, and intuitive-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kin & makeup techniqu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ile the avoidant-type, rational-type, and dependent-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lothing & hair care. The avoidant-type and intuitive-typ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weight control.

Third, in the influence relations of stress coping method,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of adolescents, the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aggressive coping behavior, and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rn

alization while all the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erception. The active coping behavior, social support-seeking coping behavior, and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kin & makeup technique of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while all the variables except for aggressive cop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clothing & haircare. The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weight control.

Fourth,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cision-making types and stress coping method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toward adolescents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the decision-making types had partially-mediating effects only on the refusal and coercion while the stress coping method had partially-mediating effects on the parent support, coercion, and refusal.

Fifth,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cision-making types and stress coping method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toward adolescents on the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the decision-making types had partially-mediating effects on the parent support, coercion, and refusal while the stress coping method had partially-mediating effects on the parent support and coerci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parenting attitude toward adolescents would be a variable having effects on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decision-making types and stress coping method, and also showed the necessity of positive and moderate parenting attitude without leaning to one side.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the guidance on appearance management

of adolescents by providing the basic data of parenting attitude toward adolescent children and improvement of adolescents' correct perception of appearance and body image.

<부록>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자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박사과정에서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의사결정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소중한 애용은 다른 응답과 함께 통계적으로만 처리되고, 통계법 제13조에 따른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은 연구를 위해 소중하고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지도교수 : 김경희

연구자 : 이유림

E-mail : nrgmin@naver.com

I. 다음은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부모양육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9.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0.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1.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2.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 유도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3.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4.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귀하의 의사결정유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의사결정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결정을 내릴 때, 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옳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충고를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결정을 내리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중요한 결정에 직면할 때,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내적 느낌과 본능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결정을 내릴 때, 나는 구체화된 목표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택 안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압박을 받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자주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3.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나의 본능에 의존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언제든지 가능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연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자주 계획이나 준비 없이 얼떨결에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자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18.	만약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쉬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빨리 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귀하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혼자 조용히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돌려주거나 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을 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전화상담을 하거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집을 나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또는 죽는 것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1.	친한 사람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그런 문제를 당한 내가 불쌍하고 안됐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며 따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께 나의 문제나 걱정거리를 얘기하고 도움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문제가 생긴 원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16.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잊으려고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귀하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요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몸이 TV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과 사진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의 몸매를 TV 스타들이나 영화배우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몸매가 좋은 사람들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나도 저런 몸매를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한 사람이 좋게 평가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몸매가 수영복 모델과 같은 몸매였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데 외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오늘날의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외모를 잡지에 나오는 모델들과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TV를 보면 외모(몸매, 몸무게, 멋지게 옷입기)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	외모관리행동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화장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피부관리를 위해 마사지나 팩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외출을 할 때엔 화장(파운데이션, 립스틱, 눈화장 등)을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피부타입에 맞는 화장품/세안제품을 신중히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매일 헤어드라이어, 셋팅기, 헤어제품 등으로 머리를 손질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체중조절을 위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상과 패션소품을 잘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부관리를 위해 미백, 주름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즐겨 바른다.	①	②	③	④	⑤
11.	최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잘 따라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외모관리를 위해 화장하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떤 옷이 유행하는지 관심이 많고 유행하는 옷을 입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의 형제(자매)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④ 없음(외동)

8. 현재 귀하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 ① 부모님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⑤ 할아버지
⑥ 할머니 ④ 고모 ⑦ 삼촌, 고모, 이모 ⑧ 기타 ()

- 긴 설문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